

調查報告 第102冊

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查 報告書



2004

忠北大學校 博物館

71-16



調查報告 第102冊

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查 報告書

2004

忠北大學校 博物館

차 례

| | | |
|---|-----------------|----|
| 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님의 분묘 조사 | 우종윤 · 손명수 | 5 |
| 1. 조사개요 | | |
| 2. 조사경위 | | |
| 3. 조사내용 | | |
| 4. 조사결과 | | |
|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와 영남 예천의 갑오년 상황 | 신영우 | 24 |
| 1. 머리말 | | |
| 2. 문경 산북면 석달리의 인천 채씨가와 채홍우 | | |
| 3. 1894년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예천공방전 | | |
| 4. 맺는말 | | |
| ※ 부 록 | | |
| I. 제문 | 이이화 | 73 |
|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토양의 유기지화학 분석 예비고찰 | 김주용 · 남옥현 | 75 |
| 1. 서언 | | |
| 2. 토양 유기지화학 연구 개요 | | |
| 3. 토양분석결과 | | |
| 4. 결론 | | |
| I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출토 목재소편의 수종 분석 | 박원규 · 이기성 | 79 |
| 1. 조사대상시료 | | |
| 2. 분석방법 | | |
| 3. 분석결과 및 고찰 | | |

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님의 분묘 조사

우증윤 · 손명수
(충북대학교 박물관)

1. 조사개요

- 조사명 : 문경 석달동 동학혁명유공자 채홍우님 영현 봉안식 분묘조사
- 위치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채홍우님 분묘
- 조사기간 : 2004년 3월 21일 ~ 2004년 5월 31일
- 조사성격 : 분묘조사(1기)
- 조사기관 : 충북대학교 박물관
- 의뢰기관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추무용사촌

2. 조사경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추무용사촌’은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의 녀이 깃든 분묘(가묘)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가묘내부의 현상파악 및 가묘에서 출토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전시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분묘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9일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10년만에 동학농민군이 명예회복된 이후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의 분묘에 대한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사진 1).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은 현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달리에 세거하던 인천 채씨 가문의 일원이었다. 조선 철종 8년(1857년)에 태어나 석달리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가던 채홍우님은 동학에 들어가서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때 구국의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무장봉기에 참여하였다.

1894년 여름에 동네의 동지들인 채성우님과 황기용님과 함께 분연히 봉기의 대열에 참여하여 석달리를 떠났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채성우님이 채홍우님의 비장한 최후를 전해 주어 후손들은 8월 28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1894년 8월 28일은 예천읍내의 한천에서

보수집강소의 군사들과 농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날이다. 채홍우님은 이 한천전투 중에 희생되어 한천 모래밭 부근 어딘가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후손들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상선 새터의 유동에 가묘를 만들어 제를 올려왔다. 가묘에는 평소에 채홍우님이 사용하던 밥사발에 고인의 이름을 써넣어 유해를 대신하여 묻었다는 이야기가 후손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조사는 가묘의 구조를 파악하고, 가묘에 시신대신 묻었다는 밥사발의 존재여부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수습한 자료 - 후손들에 의해 전해오는 가묘에 묻었다는 밥사발과 흙[靈土], 기타 출토품 등 - 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하여 교육 연구자료로 삼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학술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채홍우님의 분묘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조사 단장 : 신영우(충북대학교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우종윤(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
- 조 사 원 : 손명수(충북대학교 박물관 조교)
- 조사보조원 : 최정수(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원)
 송지현(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원)

이밖에 김태홍·안주현·이제원·연호상(이상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등이 분묘조사에 참가하였으며, 김우성·이소영(이상 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등이 자료수집, 조사자료의 정리, 사진 작업 및 도면작업을 도왔다

채홍우님의 분묘조사는 2004년 3월 21일 분묘가 자리한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현지에서 거행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 영현 봉안식”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봉안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사진 2~8).

〈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 영현 봉안식순 〉

사회 : 신 영 우(충북대학교 박물관장)

1. 개회사 정 남 기(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 | |
|---------------|--|
| 2. 친족인사 | 채 의 진(방손 대표) |
| 3. 전통 제례 | |
| — 초헌 | 채 홍 득(중 손) |
| — 제문 | 이 이 화(동학농민혁명단체연합회 고문) |
| — 아헌 | 윤 영 식(채홍우님 동지 후손) 전 장 홍(채홍우님 동지 후손) |
| — 종헌 | 채 종 선(문경문화원장) |
| 4. 후손인사 | 채 홍 빈 |
| 5. 헌 화 | 내빈 · 후손 |
| 6. 폐 회 | |

〈 중 식 〉

* 분묘 개토

| | |
|--------------------|---------------|
| 1. 분묘 수습조사 |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단 |
| 2. 유품 수습 이장 | 후 손 |
| 3. 위토 수습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 4. 분묘정리 및 식수 | 내빈 · 후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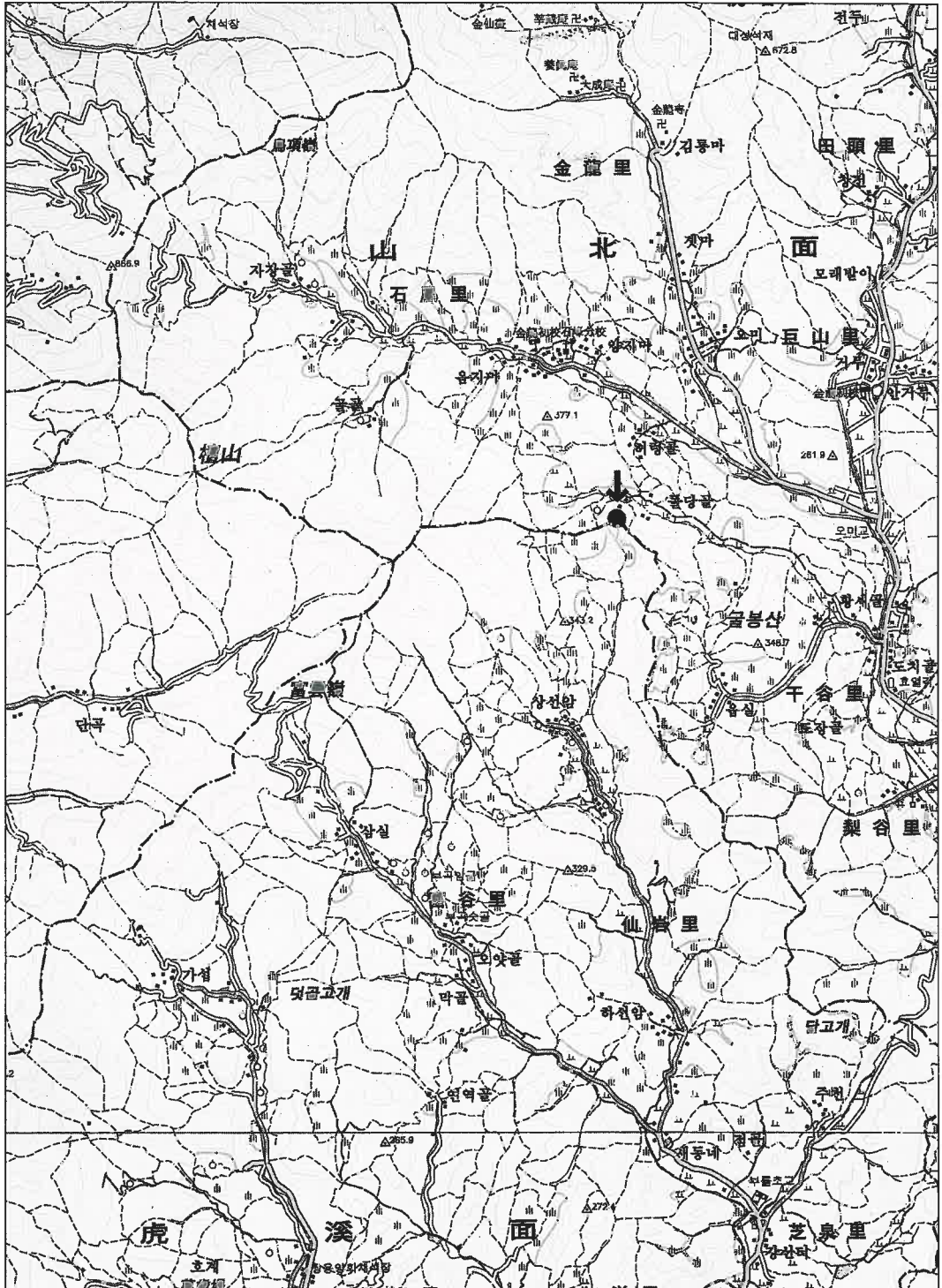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봉안식순에 따라 제의를 행한 후 분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분묘조사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어 정비하는 것으로 봉안식 및 분묘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중 묘광 내에서 출토된 나무가지는 수종분석을 하여 나무종류를 밝히었고, 묘광 내부의 토양은 유기지화학분석을 실시하여 유기물질의 부장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영현 봉안식 및 분묘조사의 모든 과정은 전주 KBS 촬영팀이 방송용 영상에 담았고, 후손들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하였다.

3. 조사내용

1) 분묘의 위치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의 분묘(가묘)는 경북 문경시 동쪽에 있는 단산(檀山;해발 956m)에서 북서-남동방향으로 길게 뻗어내려오는 주월산(舟越山)의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사면부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면에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자리하고 있는 주월산을 마을에서는 배너미산이라 부르 고 있다.



[지도 1] 채홍우님 분묘 위치도 (문경, 1:50,000)

이곳은 행정구역상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능선 줄기를 경계로 호계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의 깊은 산중에 있다. 분묘는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으나, 분묘에 이르기까지는 산사면을 깎아 낸 산길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인천채씨 소감공파 족보(仁川蔡氏 少監公派 族譜)』에는 이 가묘의 위치를 석달동(石達洞) 구촌(舊村) 후산(後山) 곤향(坤向)에 있는데 상선(上仙) 신기(新基) 유등(柳燈)이라고 되어 있다. 상선은 가묘가 위치한 지명을 말하고, 신기는 새터 그리고 유등은 버드나무고개를 의미한다. 곤향(坤向)은 남서향으로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방향을 지시하여 준다.

2) 분묘형태와 조사방법

채홍우님의 분묘(가묘)는 능선 정상부의 완만한 경사면을 평탄작업하여 묘역을 조성하였으나 묘역은 좁은 편이다. 묘역의 중심부에 분묘를 조성하였는데 타원형태의 봉분만이 조성되어 있을 뿐이며, 흔히 볼 수 있는 민묘로서 사성이 없고, 망주석·향로석·상석·묘갈·덧돌 등 석물도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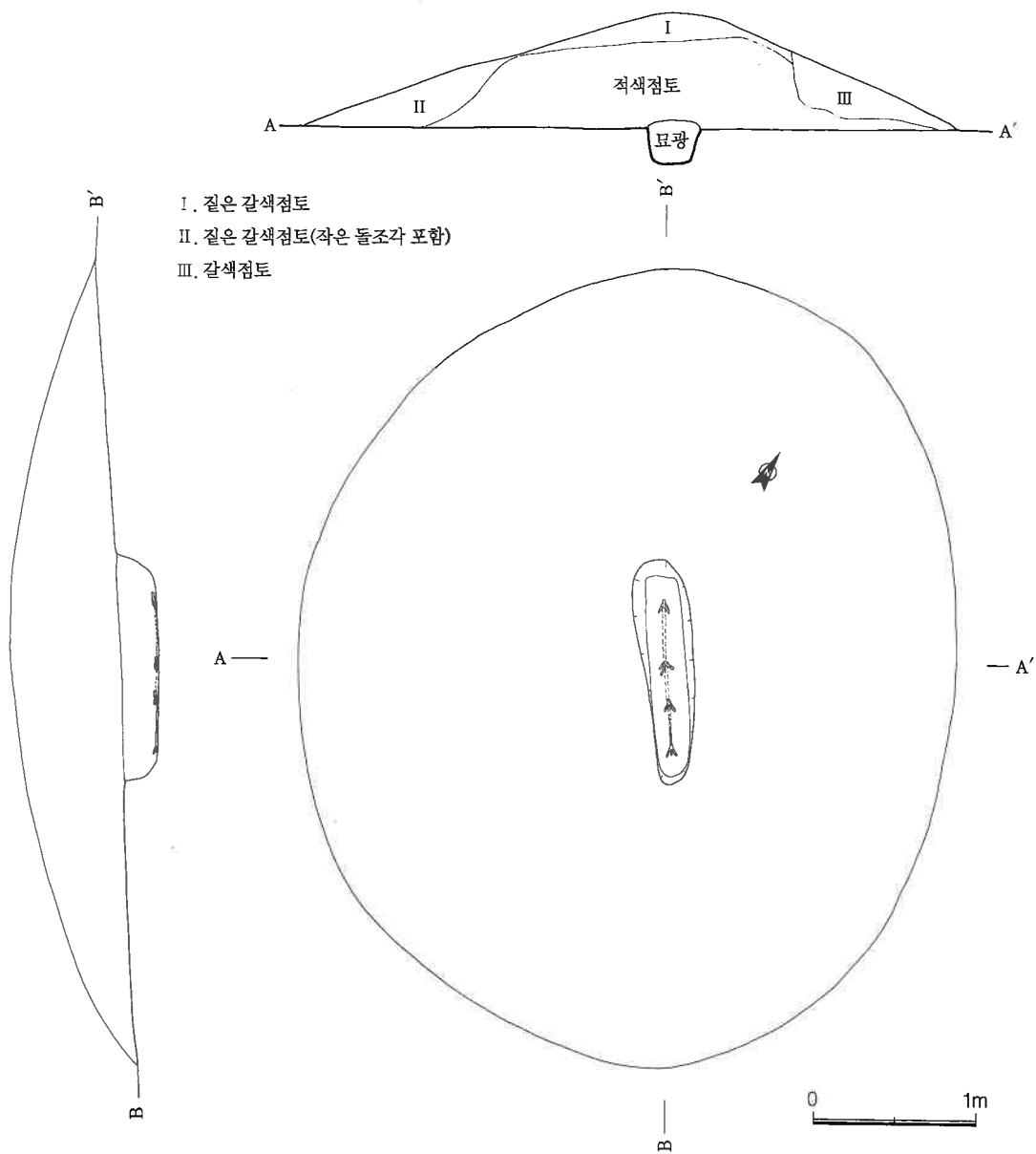
봉분의 규모는 남-북 5m, 동-서 4m로 타원형태를 띠고 있으며, 봉분의 높이는 65cm이고 봉분의 긴 길이방향은 N-40°-E로 등고선 방향과는 대체로 직교하고 있다. 묘역 둘레에는 소나무가 빼곡히 둘러져 있어 거의 늘 그늘이 지고, 봉분조성 흙이 산돌 섞인 매우 점성이 강한 적색 점토로 되어 있어 봉분에는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패여진 상태이었다.

채홍우님의 분묘조사는 사전 기초조사를 통하여 분묘 조성배경 및 조성시기, 분묘의 성격, 분묘 주인 공과 신분, 부장품 등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장품의 존재여부 확인 및 분묘 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분묘 조사는 4분법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봉분 정상부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구획한 후 봉분 남서부분의 봉토부터 제거하기로 하고, 봉분 중심부로부터 외곽 경계면쪽으로 봉토를 층위적으로 제거하면서 봉토조성과정을 밝히려 하였다. 그런데 봉토의 층위구성은 부식토-적색 점토로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봉분 중앙부 바닥면에서 묘광 서쪽 윤곽선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묘광 동쪽부분의 윤곽 확인을 위해 봉분 남동부분을 확장 조사하여 묘광 남쪽부분의 윤곽선을 확인하였다(사진 9). 이렇게 조사하여 봉분의 동-서단면 층위를 확인하고 묘광 반쯤이 노출됨으로서, 층위 단면도를 작성한 후 봉분 북쪽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였다(사진 10·11).

당초 조사는 4분법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봉분개토를 오후 1시에 시작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봉분의 남서·남동부분 조사를 통하여 봉토층위 및 묘광 윤곽이 확인됨에 따라 봉분 북동·북서부분은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서 조사는 2분법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었다.

동-서 단면상으로 볼 때 봉분은 당초 묘광 남-북 중심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50cm·동쪽으로 170cm너비로 동쪽으로 약간 넓게, 높이는 묘광 조성면에서 50cm정도로 반타원형 형태로 봉분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조성은 묘역조성시 파낸 붉은 점토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봉분 가장자리



[그림 1] 체흥우님 분묘 평·단면도

부분의 붉은 점토가 단을 이루듯 파여져 있고, 이 부분이 갈색부식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봉분조성 후 가장자리부분이 물의 영향을 받아 쓸려내려갔거나 봉토가 내려앉음에 따라 후에 봉분을 보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봉분조사시 구조물이나 유물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3) 묘광구조와 출토품

묘광은 봉토를 묘광 조성면까지 완전히 제거하자 현재 남아 있는 봉분의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노출되었고, 묘광 조성면은 적색 점토의 생토면으로 매우 점성이 강하고 단단하며 묘광 이외에 별도로 땅을 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 형태로 긴 길이 방향이 봉분의 긴 길이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사진 12). 묘광은 일단으로 판 모습이며, 동·서 긴벽은 수직에 가깝게 짚으나 북쪽은 묘광 안쪽으로 정사지게 파내려가다 묘광 중간쯤에서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도록 짚다. 묘광 남쪽부분은 북쪽에 비해 좁고 둥글게 판 모습이다. 묘광 바닥면은 생토층(적색 점토)을 편평하게 고른 상태이다.

묘광 규모는 묘광 윤곽선에서 길이 138cm, 너비 35cm(북)·18cm(남)이고, 바닥면에서 길이 123cm, 너비 22cm(북)·15cm(남), 깊이 25cm로 머리쪽으로 추정되는 북쪽이 넓고 남쪽이 좁은 형태이다. 이러한 묘광 규모는 봉분에 비해 매우 작은편이고, 또한 어른의 시신을 매장하기는 불가능한 규모이다.

묘광 내부는 수평으로 조금씩 흙을 걷어내면서 조사하였다. 묘광 내부 흙을 절반쯤 걷어낸 후 이장을 위한 영토(靈土)를 후손들이 미리 준비한 나무상자에 담았고(사진 13·14·15),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할 영토도 별도로 담아 포장하였으며, 토양성분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였다(사진 16).

묘광 바닥면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면서 조사하였으나 오늘날까지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채홍우님의 시신을 대신하여 고인의 이름을 새겨넣어 묻었다는 밥사발은 출토되지 않았고, 다만 묘광 바닥면 중앙에서 묘광 길이 방향으로 놓여진 나무가지가 출토되었다(사진 17).

나무가지는 한가지로 길이 97cm이며, 4개의 새가지가 나 있다. 송진이 많은 새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새가지와 새가지 사이부분은 썩어 흔적만이 확인될 뿐이다. 새가지는 지름 0.5~1.0cm로 길이 5~8cm를 남기고 잘라내어 마치 사람 인(人)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새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부분을 발쪽인 남쪽을 향하도록하여 묻었음이 주목된다.

이는 동학농민 봉기의 대열에 참여하여 한천전투에서 희생되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자, 후손들이 고인의 가묘를 조성하며 시신 대신 사람의 형상을 띤 나무가지를 잘라 묻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나무가지는 시신을 상징하며, 당초부터 시신 대용으로 나무가지를 묻기위해 묘광을 세장하게 파서 조성하고, 나무가지의 밑동부분을 머리부분으로 여겨 북쪽(능선 정상부 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및 묘광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였으나 다른 구조물 흔적이나 출토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손들이 수 십년간 굳게 믿고 큰 관심과 기대를 갖았던 밤사발도 발견되지 않았다(사진 18·19). 이 조사의 전과정을 지켜보던 후손들의 실망하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분묘조사 후 봉분을 제거한 흙으로 주변을 덮고 묘역내에 소나무 10여 그루를 심어 정비한 것으로 영현 봉안식 및 분묘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4. 조사결과

이 조사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분묘에 대하여 전통 봉안의식과 함께 학술적 목적을 갖고 분묘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의 분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비록 시신이 묻히지 않은 분묘(가묘)이기는 하나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분묘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고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으며, 채홍우님의 분묘조사 결과 및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채홍우님의 영현 봉안은 전통제례 의식과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앞으로 동학농민군 분묘이장시 학술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후손 뿐만아니라 전공학자·동학농민혁명유족회·동학농민혁명단체연합회·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계자·대학 학술기관·주민 등이 참여하여 엄숙한 전통제례 의식과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분묘조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학술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학농민군 분묘이장시 정밀한 학술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동학농민군의 매장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희생된 경우 당시의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수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없이 분묘를 조성할 경우 시신 대신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물체(물건)를 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홍우님의 분묘에서는 시신 대신 인(人)자 형태를 띤 나무가지를 묻어 당시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매장방법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묘광 형태 및 규모로 볼 때 시신이 없으므로 분묘조성 당시에 이미 나무가지를 묻기 위해 의도

적으로 세장한 형태의 묘광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분묘조사시 수습한 자료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자료 확보를 시도하였다.

분석은 묘광 내부의 흙과 묘광에서 출토된 나무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묘광 내부의 흙은 주변 산림지나 구릉지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 토양임이 밝혀져, 묘광내에 시신 등 유기물질이 묻혀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신 대응으로 묻은 나무가지는 수종분석 결과 소나무과 소나무속 중 2엽송(경송류)로 밝혀졌다. 따라서 채홍우님의 분묘에는 소나무 가지를 잘라 시신 대신 묻었음이 확인되었고, 후손들에게 전해오는 이름을 새겨넣은 밥사발을 묻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고고학적조사 및 자연과학적인 분석으로 밝혀졌다.

넷째,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분묘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채홍우님의 분묘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동학농민군 분묘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동학농민군 분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 동학농민군 분묘이장시 동학 관련 전공학자·고고학자·자연과학자 등이 참여한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단순한 분묘 이장으로 그치지 않고 분묘 주인공 및 분묘 구조, 출토품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며, 채홍우님의 분묘조사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의 분묘에 대한 학술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진 1] 석문에서 바라본 석달리 원경



[사진 2] 조사현장 현수막



[사진 3] 추모제



[사진 4] 제문을 올리는 이이화 선생



[사진 5]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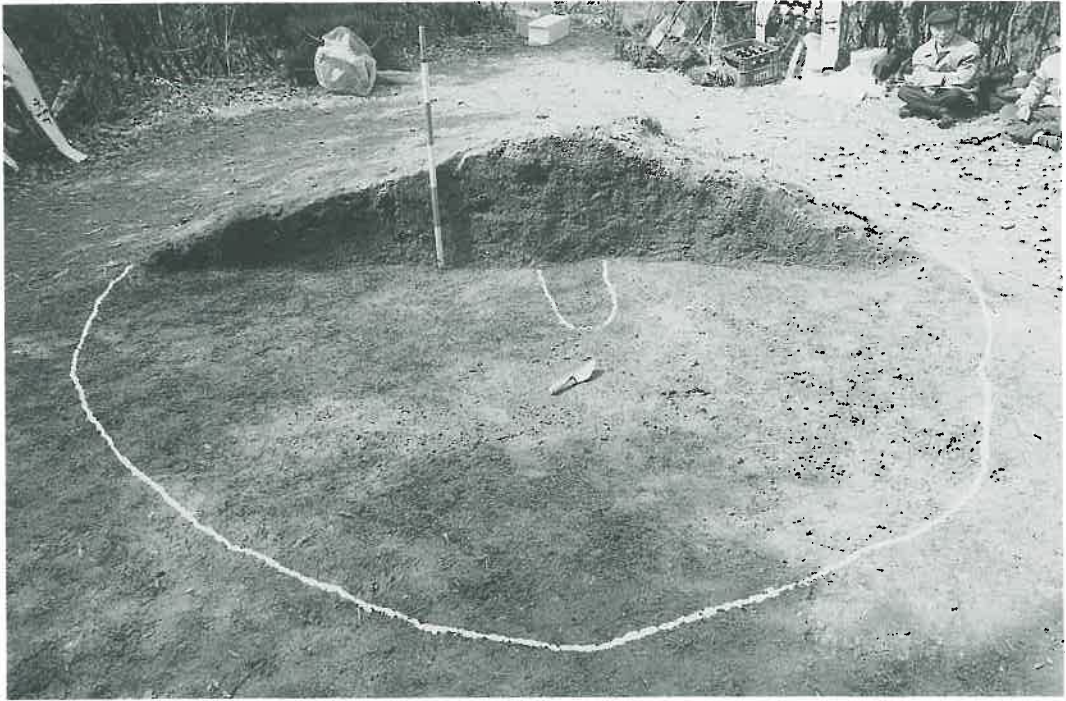
[사진 6] 채의진님 친족인사



[사진 7] 분묘 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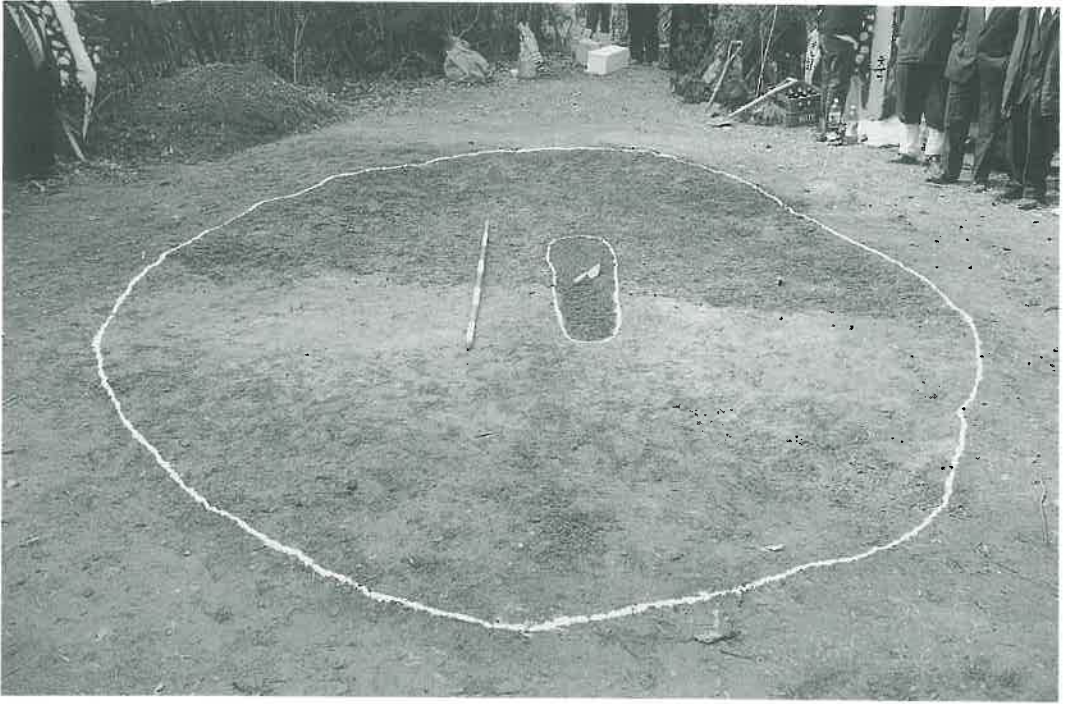
[사진 8] 유족들의 사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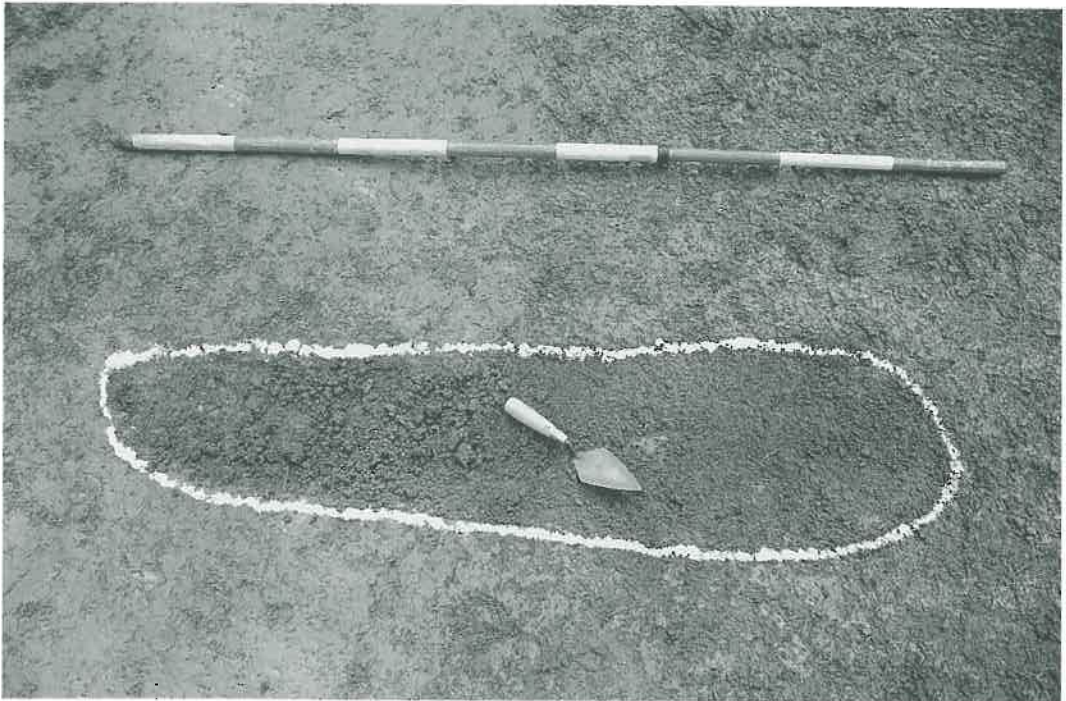
[사진 9] 봉토의 1/2을 제거한 후 노출된 묘광선



[사진 10] 분묘 실측조사



[사진 11] 봉토를 제거한 모습



[사진 12] 봉토제거 후 노출된 묘광



[사진 13] 영토를 함에 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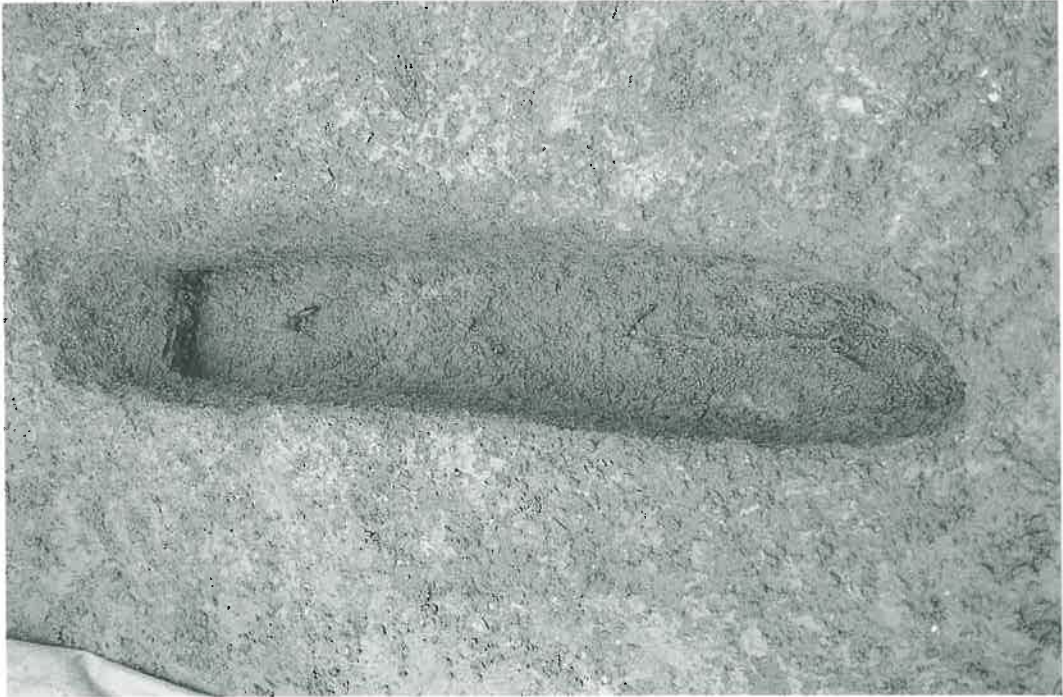
[사진 14] 영토와 함께 안장될 묘지



[사진 15] 영토를 함에 담은 모습



[사진 16] 토양 시료 채취



[사진 17] 묘광 내부 모습



[사진 18] 조사 완료된 묘광과 봉분 영역



[사진 19] 발굴 과정과 출토유물 설명

II. 東學農民革命 참여자 蔡洪禹와 嶺南 예천의 甲午年 狀況

申榮祐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1. 머리말

1894년 봄부터 여름까지 경상도 북부의 문경·예천·함창·상주 일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크게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동학 조직의 세력증대 과정을 보면 봄과 여름 시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봄 시기에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봉기한 소식을 전해들은 각 군현의 동학 조직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포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호응한 농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동학은 양반세력은 물론 지방관아를 압도하는 형세를 보였다.

여름에는 청과 전쟁을 벌인 일본군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병참선을 구축하면서 정세가 급해지기 시작한다. 경상도의 낙동·함창·태봉·문경 그리고 충청도의 안보·가흥에 병참부가 설치되자 수많은 일본군이 이 병참근거지를 거치며 행군하는 광경을 지역민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일본군이 경북공을 습격해서 점거하고 있고, 일본과 가까운 개화파가 집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종래 임란의병의 전통을 자랑하던 양반유생층이 동학세력에 밀려 향촌사회 내부에서 무력해진 속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선 것은 동학 조직이었다.

1894년 여름에서 겨울까지 동학농민군이 경상도 북부에서 전투를 벌인 상대는 관군과 일본군 그리고 민보군이였다. 전국에 걸친 동학농민군의 주적이 일본군이였다면 경상도의 여러 군현에서는 양반과 향리들이 주도해서 만든 민보군이 일본군과 함께 주요 대적 상대였다. 경상도 북서부 일대에서 벌인 주요 전투는 예천공방전, 석문리전투, 상주 읍성전투, 선산 읍성전투 등이 있다. 이중 예천 읍내에서 벌어진 공방전은 동학농민군과 읍내의 민보군 간 벌어진 일대회전이었는데 이 때 참여한 수가 모두 6~7천명이였다. 민보군은 총수 1천5백여 명에 읍내의 부녀자까지 방어에 나섰고, 왕조정부에 공식 보고된 동학농민군의 수는 4~5천명이였다.

문경 산북면 석달동에 세거하던 인천채씨가(仁川蔡氏家)의 일원인 채홍우(蔡洪禹, 1857~1894)는 이 예천공방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손들이 전해주는 증언은 기록과 일치하여 이미 확인된 예천공방전의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인천채씨 소감공파(少監公派)의 족보에 기재된 돌아가신 날짜도 공

방전이 벌어진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인천채씨 일족으로 동학농민군에 함께 들어가 활동했다가 예천공방전에서 살아 돌아온 목격자인 채성우가 후손에게 전해준 일화는 정확한 증거로 인정된다.

채홍우의 가문과 동학농민군으로서의 활동 내력 그리고 예천 일대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추적해서 정리하는 작업은 의미가 적지 않다. “누가 동학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앞서서 싸웠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연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접주나 수접주와 같은 고위지도자로서 진압군축에 의해 이름이 지목되어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일반 참여자들을 조사하는 일은 더욱 의미가 있다. 묻혀진 사실을 밝혀내서 동학농민혁명의 추진세력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수행되는 개인에 관한 연구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참고할 자료가 빈약할 뿐 아니라 사회상이 크게 달라진 조건 속에서 개인 배경을 추적하는 일에 갖가지 난관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천과 상주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배경을 이미 조사한 연구는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갑오년의 사적을 밝혀내는 작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글은 일차 문헌 사료가 거의 없이 증언을 토대로 진압기록과 일치하는 채홍우 개인에 관해 살펴보고, 채홍우가 활동한 1894년의 상황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조명하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연구는 방증 자료가 부족하지만 1894년 여름에 격동했던 사회상을 살펴보면 채홍우의 위치가 일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경 산북면 석달리의 인천 채씨가와 채홍우

1) 문경 석달리와 인천 채씨가

조선 시기에 문경은 국가에서 중요시하던 대응은 아니었다. 문경은 태종 13년(1413)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한 이래 음(蔭) 6품이 현감으로 보임하던 작은 현에 지나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 문경은 천연요새로서 관방(關防)의 이점을 주목받지 못하였다.

군사요충지인 새재를 중요시해서 군현의 위상이 올라간 때는 임진왜란의 참화를 입고 난 오래 뒤인 18세기 중엽이었다. 영조 28년(1752)에 와서 비로소 조령진(鳥嶺鎭)을 설치하고 현감을 수성장(守城將)에 겸임시켰다. 서세동점의 외세 침입에 대비하여 산성전(山城戰)전의 효과에 주목했던 고종 29년(1892)에는 지방관을 현감에서 도호부사로 승격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문경의 수성장(守城將)을 관성장(管城將)으로 개명해서 함창·용궁·예천 3읍의 군제(軍制)를 관할하도록 했다.

문경은 서울에서 동래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상의 요지이기도 했다. 충청도 경계를 지나 이

화령을 넘으면 경상도 내륙으로 이어지는 첫머리에 있는 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경에 설치한 유곡역(幽谷驛)은 이 일대의 군현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었다. 종6품으로 보임된 유곡의 찰방(察訪)은 문경·상주·예천 등지의 18개 역(驛)을 관장하면서 공문서의 전달과 역마 운용을 주재하였다.¹⁾

그러나 도호부로 승격된 문경은 인근 대읍인 상주나 예천에 비해 인구나 물산이 빈약하여 여전히 소읍에 지나지 않았다. 깊고 높은 산줄기가 경내의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형세라서 경작지가 좁을 수밖에 없고, 또한 큰 마을을 이루고 살만한 평지가 많지 않아서 인구나 물산이 인근 군현에 비해 소규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호수가 3,500호 내외였고 인구는 1만 명을 겨우 상회하였다.²⁾

현재는 문경이 조선 시기에 비해 경내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 조선의 군현 영역을 현재의 문경 영역 안에 겹쳐보면 상주·예천·함창·용궁의 여러 마을이 함께 들어가 있다.³⁾ 군현이 폐지된 함창과 용궁

1) 『聞慶邑誌』建置沿革, 驛院

2) 18~19세기 문경의 호구

| 구 분 | 영조 35년(1759) 己卯式 | 정조 13년(1789) 己酉式 | 순조 32년(1832) 壬辰式 | 현종 12년(1846) 丙午式 |
|-----|------------------|------------------|------------------|------------------|
| 戶 數 | 3,466 | 3,553 | 3,524 | 3,548 |
| 人 口 | 10,244 | 10,452 | 10,704 | 10,439 |

3) 현재 문경에 소속된 마을(1899년 읍지 기준)

| 郡縣 | 面 | 마을수 | 마 | 을 | 명 |
|----|-----|-------------------------|---|---|---|
| 聞慶 | 身東 | 6 | 井谷, 金谷, 於項, 其火谷, 新院, 鳳笙 | | |
| | 草谷 | 4 | 陣安, 草谷, 各石洞, 要光院 | | |
| | 身北 | 10 | 堯城驛村, 廣水院, 巴八, 古鼎城, 花枝, 山門, 伐川, 龍淵, 中坪, 觀音院 | | |
| | 身南 | 6 | 馬砲院, 牛於洞, 茅谷, 鼎洞, 九郎, 乃西川 | | |
| | 戶西 | 4 | 佛井院, 幽谷驛吏, 辰谷, 茅田 | | |
| | 戶南 | 4 | 戶倉, 宋淵, 牛池洞, 興德洞 | | |
| | 戶縣內 | 5 | 犬灘, 舟坪, 窟岩, 戶界, 牛老 | | |
| | 加東 | 8 | 旺陵, 都吞, 葛田, 阿介, 鵲泉, 觀山, 水染, 猪音 | | |
| | 加縣內 | 7 | 城低, 城躑, 神堂, 水曳, 廣灘, 前谷, 民池 | | |
| | 加南 | 4 | 大峴, 池洞, 立岩, 秣地 | | |
| | 加西 | 9 | 加項, 籠岩, 乃西, 大井, 鍾谷, 乾川, 馬岩, 古毛, 松面 | | |
| 加北 | 6 | 孤山, 都台, 竹門, 完章, 院堡, 官廳伐 | | | |
| 尙州 | 永順 | 20 | 上栗, 下栗, 道淵, 儉浦, 白浦, 古皮, 洪洞, 沙斤, 茂林, 蟻谷, 云川, 柵洞, 芮洞, 浦上, 浦下, 金龍, 申前, 下車, 店村, 芮津 | | |
| | 山南 | 21 | 盤谷, 盤岩, 場基, 三巨里, 三溪, 松竹, 辰井, 直上, 直下, 平地, 池洞, 德岩, 安良, 玉山, 佛岩, 鳳岩, 秋山, 秋岩, 基洞, 新基, 存道 | | |
| | 山西 | 16 | 幕谷, 九尾, 加道, 富城, 三谷, 瓦也, 下仙, 上仙, 塔上, 塔下, 熊昌, 酒泉, 蘭芝, 金沙, 鳳上, 鳳下 | | |
| | 山東 | 21 | 蓮新, 連沼, 蓮花, 龍新, 良浦, 新驛, 箕山, 店村, 杜谷, 兄川, 果上, 果下, 烽底, 洪底, 錦川, 縣上, 縣里, 雄倉, 松本, 鹿門, 新浦 | | |

의 13개 마을이 문경에 들어온 것뿐 아니라 예천의 22개 마을과 상주의 116개 마을이 문경에 편입되었다. 본래 문경현에는 73개 마을만 있었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의 마을이 문경에 합쳐진 것이다. 이것은 상주의 속현이었던 산양이 문경에 편입시킨 영향이 컸다.

1894년 당시 석달리는 상주의 산북면에 속해 있었다. 산북면에는 해발고도 1097미터의 운달산이 솟아있다. 소백산맥 줄기에 있는 높은 봉우리인 운달산은 서쪽의 주흘산(1106미터), 북쪽의 황정산(1078미터), 남서쪽의 봉명산(692미터)과 함께 문경을 둘러싸고 있는 명산이다. 동쪽 기슭에는 금천(錦川)이 흐르고, 산중에는 김룡사(金龍寺)가 자리잡고 있다. 김룡사는 신라 진평왕 10년(588)에 운달(雲達)이 창건한 고찰로서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다.

김룡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문(石門)을 지나야 한다. 석문 일대는 지형이 오묘하다. 이곡(梨谷)마을 또는 냇가에 정자가 있어서 이정(梨亭)이라고 부르는 곳에 석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커다란 바위산이 돌문 형태로 닫혀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외부에서 보면 계곡물이 흐르는 사이로 바위산이 양편에서 엇갈려 맞물리듯이 있어서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계곡을 지나 들어가면 갑자기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은 마치 석문을 통과한 것처럼 생각된다.

김룡사는 이 넓은 국면의 중간에 자리 잡았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면 소야(蘇野)가 나온다. 소야는 신라 때의 소(所)가 있던 곳으로서 한자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 비교적 큰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행정구역을 보면 상주목과 예천군의 경계는 소야에서 갈라진다. 마을 서쪽의 작은 골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상주소야이고 동쪽은 예천소야였다. 왼쪽으로 가면 다리를 지나 우음동이 나오는데 석달리는 우음동에서 산골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나온다.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산골 마지막 마을이다.

문경에는 上里 下里와 같은 마을이름이 많다. 산골짜기를 올라가며 마을이 이루어져 아랫마을과 웃마을 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정착된 까닭이다. 直上 直下, 上仙 下仙, 塔上 塔下, 鳳上 鳳下, 果上 果下, 回

| 郡縣 | 面 | 마을수 | 마을명 |
|----|-----|-----|--|
| 尙州 | 山北 | 38 | 新川, 藥山, 槐下, 白石, 回下, 回上, 伊谷, 倉田, 田頭, 蘆花, 九巖, 浦村, 潘溪, 召野, 沙村, 新坪, 宗谷, 梨丁, 梨下, 梨上, 江湖, 刀致, 大鳥, 于邑, 石橋, 新基, 五山, 鳳上, 鳳下, 桃李, 月峴, 幕谷, 廣川, 大下, 大上, 智保, 保村, 書院 |
| 咸昌 | 東 | 2 | 錢村, 栗谷 |
| 龍宮 | 西 | 11 | 王泰洞, 五龍洞, 末應里, 達池洞, 大栗里, 三仁里, 亭子洞, 粉土里, 錦陽里, 茂林里, 梨木里 |
| 醴泉 | 花庄 | 14 | 加佐目洞, 蘇野里, 挿峴里, 蒼邱里, 內化里, 伊川里, 月沙里, 加佐谷洞, 上渭里, 下渭里, 池內里, 黑松里, 鍾谷里, 水間里 |
| | 冬老所 | 18 | 外生達里, 內生達里, 泗坪洞, 仁坂里, 魯隱里, 赤城里, 平地里, 場基里, 水坪里, 礪谷里, 石坪里, 松坪里, 石項洞, 磨光里, 水眞溪里, 伐川里, 沙店里, 諸谷洞 |



[이정(梨亭) 전경]

地將圖伐邑 而閭巷間
小接 發徒卒 競相侵虐
百姓不能支保 怨乎之聲
載於道路¹¹⁾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에서 온 각 동학도들이 상주 이정(梨亭)과 소야 등지에 집결해 있었다는 기록이다. 석달리에서 이정은 아주 가까운 거리이고, 소야도 걸어서 바로 단

는 거리에 있다. 집결지는 교통의 요지에 정하기도 하지만 동학의 세력이 강한 곳에 정하는 것이 당시의 상례였다. 이정에 인접한 석달리와 그 인근 마을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했을 것은 쉽게 추정된다.

예천공방전에서 전사한 사람이 채홍우이다. 1857년생인 채홍우는 1894년에 만 37세였다. 집안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채홍우는 장사였다. 혼자서 1,400평의 밭을 하루에 갈았을 만큼 힘이 셧다고 한다. 증손자 홍빈(鴻彬)의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한다.

증조할아버지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혼자서 천사백 평 밭을 갈았던 장사였다고 해요. 증조할 아버지는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동학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동학에 들어갔던 이야기는 집안에서는 숨기다시피 내려와서 동네 어른인 장봉옥 할머니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지요. 일제 때는 죄인 취급을 받아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지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한창 혈기가 있을 때 동학에 가담해서 활동했지요. 석달동에서 증조할아버지와 종증조할아버지(성우, 成禹), 장수 황씨인 황기용(黃基用) 할아버지 세 분이 예천에 가서 싸웠다고 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야간에 선제 공격하다가 작고하셨다고 해요. 두 분은 살아서 돌아오셨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은 성우 할아버지이지요. 성우 할아버지는 내가 열세 살까지 살아가셨어요. 일하러 가시다가 우리 집에 들르시면 “동학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동학도들이 일본사람들 모인 곳

11) 『갑오척사록』8월 20일자.

에 총을 쏘지.”하며 그 때 얘기를 전해줬지요.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시고 두 사람은 살아오셨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시신은 찾아오지 못했지요. 가묘를 만들었는데 밥사발에 이름을 써서 묻어놓고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며 지내왔어요.

이 증언에는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전해주는 자료와 일치하는 여러 사실들이 나온다. 첫째는 채홍우가 갑오년에 ‘한창 혈기가 있던’ 나이로서 힘이 센 장사였다는 사실이다. 영남북서부에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확인된다. 씨름판을 휩쓴 장사이거나 큰 들들을 들어서 괴력을 자랑했던 인물들이다. 이런 장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군사활동을 지휘하는데 중심이 되었다. 이와 함께 집안에 보관되어 내려온 병서를 읽어 병법을 알았다거나 그 자신이 무관으로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도 나온다.¹²⁾ 대접주나 접주와 같은 동학의 직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인물인 경우도 있고, 1894년에 새로 입도한 사람들 가운데 군사 역량을 지닌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곧 주목되었고 군사지도자로서 부상하기에 이른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군사 행동에 나설 때 선봉에서 서서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었다.

채홍우가 접주 등 동학의 지도자였거나 동학농민군에서 군사지도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후손은 없다. 하지만 힘이 장사였다고 전해지는 말은 채홍우가 동학에 들어가서 1894년의 격동 속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은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야간에 선제 공격을 하다가 전사했다는 증언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나오듯이 예천공방전은 1894년 8월 28일 하루에 두 차례의 큰 전투가 벌어진 사건을 의미한다. 일차 전투는 낮 12시를 지나 화지(花枝)에서 온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유정(柳汀) 숲에 포진해 있다가 한천(漢川) 제방과 현산에 있는 읍내 민보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다. 이 전투는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다가 결국 읍내의 민보군이 승리하게 된다. 이차 전투는 야간전투였다. 일차 전투가 끝나고 민보군이 읍내에 들어와 있을 때 금곡(金谷)쪽에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공격해왔다. 민보군은 양천에서 풀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금곡농민군을 기습해서 우계(愚溪) 광천(廣川)의 논밭과 산골짜기로 패주시켰다.

채홍우가 야간에 전투를 했다는 것은 금곡농민군의 읍내 공격에 참여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함께 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살아서 돌아온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증거가 된다. 선제공격이라는 말은 예천의 민보군이 외촌으로 나와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읍내 공격에 나섰다는 표현이다.

12) 줄고, 1988 「1894年 嶺南 北西部地方 農民軍指導者의 社會身分」 『學林』 제10집, 54~58.

셋째는 채홍우가 전사한 날짜이다. 인천채씨가의 족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채홍우의 사망일은 1894년 8월 28일로 기록되어 있다.¹³⁾ 이 날은 예천에서 공방전이 벌어진 날과 일치한다.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족보 기록을 보면 사망날짜는 대부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¹⁴⁾ 진압군축의 기록과 대조하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채홍우의 사망일은 족보의 기록과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과 『갑오척사록』 등 예천공방전을 기록한 자료들이 모두 일치한다.

| | |
|---------------------------------|------------------------------|
| 26世 洪禹(1857 丁巳生~1894 甲午卒) | 27世 周轍(1881~1949) |
| 字 應範 | 字 大休 |
| 甲午 8月 28日卒 | 1949年 11月 5日卒 ¹⁵⁾ |
| 墓 上仙 新基 柳嶺 | 墓 石達洞 舊村後山 坤向 |
| 配 岳林 洪氏 忌3月24日 | 配 金寧金氏 |
| 墓 聞慶郡 山北面 石達東山 未向 | 安東權氏 |
| | 1949年 12月 6日卒 |
| 28世 洗鎮(1909~1949) | 29世 鴻彬(1936年生) |
| 字 忠達 | 字 開城 |
| 1949年 11月 5日卒 | 配 興陽李氏(1939~1959) |
| 墓 石達洞 東山 坤向 | 永川李氏 |
| 配 驪興閔氏 | 全州李氏 |
| 1949年 11月 5日卒 | |
| 墓 合窠 | |
| 四女 恩淑 明淑 貞淑 賢淑 | |
| | 鴻粉 |
| | 夫 仁同 張聖基 |
| 俸鎮(1919~1949) | 鴻集(1946年生) |
| 字 忠元 | 配 寧越嚴氏 |

13) 『仁川蔡氏 少監公派 族譜』

14) 선대가 돌아가신 날을 모를 때는 족보에 집에서 나간 날짜를 돌아가신 날로 기록하고 그 날을 제사를 지내는 날로 정하기도 한다.

15) 이 족보에 1949년 11월 5일에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양민학살사건 때문이다. 경상북도 의회의 『良民虐殺真相糾明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書』에 의하면 채홍우의 아들과 손자 등 모두 6명이 학살되었다. 족보 음력으로 날짜는 기록했는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24일이다.

1949年 11月 5日卒

墓 石達東山 坤向

配 仁同張氏(1922~1975)

墓 合漙

후손들은 채홍우의 무덤을 만들어서 성묘를 해왔다. 시신은 찾지 못한 채 허묘를 만들어 모셔온 것이다. 시신을 못 찾은 것은 엄혹한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예천의 민보군은 공방전에서 승리한 직후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를 순회하며 혹독한 보복에 나섰다. 화지와 금곡 일대의 동학농민군 가담자는 대거 피신하였고, 남아있는 일가들도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였다.¹⁶⁾ 따라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족들도 유해를 찾아 장사지내려고 읍내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채홍우의 집안에서는 밥사발에 이름을 써서 시신 대신 무덤 안에 묻었다고 한다. 조선 시기에 의관(衣冠)같은 망자(亡者)의 유품을 유해 대신 묻고 장사를 지냈다는 일화(逸話)는 종종 있었고, 갑오년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집안이 있다. 그러나 밥사발을 묻었다는 전문(轉聞)은 채씨 집안에서만 전해지는 일이었다. 후손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무덤을 발굴한다면 그 사발이 출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대학박물관에서 정밀하게 발굴을 실시했음에도 가묘에 묻었던 사발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발을 묻었다는 전문은 사실이 아니었을까?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봉분 속이 아니라 지석과 같이 봉분의 앞부분 어디엔가 묻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봉분만 발굴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¹⁷⁾ 봉분 주위는 표토가 매우 단단해서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소나무가 밀생하는 넓은 영역이라서 발굴을 확대하지 못하였다. 사발을 묻었다는 전문을 사실로 믿는다면 봉분 앞쪽으로 넓게 발굴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봉분 안에서 발굴된 것은 사발이 아니라 소나무 조각들이었다. 봉분의 중심부에 마치 작은 관을 매장한 것처럼 땅을 파서 무엇을 묻은 흔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발굴된 것들이다. 한 세기가 지났지만 송진이 묻혀있는 나무 가지의 웅이부분은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팔 다리 모양의

16) 『소모사실』 乾 12월 4일자, 傳令醴泉執綱所. 민보군의 보복이 얼마나 심했는지 尙州召募使는 다음과 같이 책망을 했다. “官法不得節制 營飭視同弁 怨恣沸騰 聽聞狼藉 其果如是則 前功虧於刃山 後弊烈於洪流 其爲民邑之憂將不知稅駕何地 甯不駭惋仍念 汝矣執綱輩 乘其既盈之氣 不知所以伸縮進退 自拘於驕師悍卒之律 良亦可怒而可怒也”

17) 봉분 중앙에는 시신 대신 나무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묻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사실은 이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될 것이다.

가지가 드러나자 유해를 대신해서 사람과 같이 사지(四肢)가 뚜렷한 나무 가지를 매장한 선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하였다.

2) 일본군과의 전투 여부

후손들은 왜 채홍우가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다. 예천공방전이 벌어진 직후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공격해왔던 것이다. 그 사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청과의 전쟁을 위해 병참선로를 따라 행군하는 일본군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일본군은 그런 전례를 보지 못했던 지역민들에게 위협적이었다. 태봉병참부는 행군로의 요지에 있으면서 일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거점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이 거점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시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예천에서 대규모 공방전을 벌이던 날에 예천의 민보군에게 요청했던 것은 대일전쟁(對日戰爭)에 합세하자는 것이었다.¹⁸⁾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처음 맞부딪친 것은 산양(山陽) 집결지에서였다.¹⁹⁾ 동학농민군이 이 때 경상도 북서부에서 예천의 금곡과 화지뿐 아니라 산양에서도 집결하고 있었다. 태봉병참부의 일본군은 위협을 느끼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염담꾼을 파견하였다. 죽내대위(竹內大尉)와 병정 2명으로 이루어진 정탐조였다. 그러나 용궁(龍宮) 근처에서 발각되어 정탐조를 지휘한 죽내(竹內)대위는 피살되었고, 같이 갔던 일본군 2명은 손가락이 잘리고 총을 빼앗기는 속에서 겨우 도망하여 태봉병참부로 귀대할 수 있었다.²⁰⁾ 이 사건은 일본측에서 중시하여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으며,²¹⁾ 일본공사는 예천과 산양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군대를 파견하라고 외무대신(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에게 강요하였다. 동시에 즉시 일본군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즉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비보병 제19대대를 파견하기 전에 당시 조선에 와있었던 일본군을 직접 경상도 북서부지역에 보냈던 것이다. 이 지역에 보낸 일본군은 안동(安東) 방면으로 직행했던 50여명의 병력과 태봉병참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낙동병참부의 주둔병 그리고 충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공병중대의 일부 병력이었다.

충주에서 온 일본군 공병대 병력은 8월 29일(양 9월 28일) 오전 9시경 석문에서 동학농민군과 조우

18) 『갑오척사록』 8월 28일 宇花枝都會 通文. “以朝鮮害朝鮮 非是同水土之常情也 五百年王政 倭酋得勢 億兆蒼生 不被德化 千里邦畿 至於何境 塗炭生靈 何以奠保乎 道中之本意 斥倭也”

19) 『저상일월』 8월 20일자. “東人收刀刃 弓馬錢物 逾文嶺向金谷蘇野”

『갑오척사록』 8월 21일자. “是時各處東徒 設大會于尙州山陽 及本郡金谷花枝 各萬餘人 聲言將屠邑”

2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1) 『時事新聞』 1894년 9월 26일자 (음 8월 27일자)

했다.²²⁾ 이때가 바로 예천의 읍내공방전에서 농민군이 패배하여 소야로 겨우 돌아오던 시점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석문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기 위해 산등성이에 올라가 방어했지만 일본군의 우세한 무기에 밀려서 소야 등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예천공방전에 참가하느라고 불과 600여명만이 지키던 석문과 이 일대의 동학근거지인 소야는 계속되는 일본군의 기습에 견디지 못하였다.

소야 근거지를 점거당한 동학농민군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소야는 예천의 동학농민군이 오래 동안 전력을 기울여서 무기와 탄약 그리고 군자금을 비축했던 군주기지였다. 옥사(屋舍) 11칸에 보관해 둔 각종 무기와 돈은 일본군이 모두 탈취해갔다. 일본군과 예천의 민보군이 보고하거나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本官率領下士以下二十五名 自龍宮來抵聞慶途次 與東匪約六百名接仗 奪獲軍械 其數頗多 以夫役稀少 不能悉數擔回 銃槍旗等類 而帶回者 馬馱則約計六匹 所餘斧鋏 等件 與房屋四五間連燒 又搜出銃二百枝 令已派遣 擔夫三十名 匪徒死者二名 傷者不明 我兵無恙

查其奪獲物件 火繩銃壹百零參枝 刀四把 槍參枝 馬二匹 銅錢九貫文²³⁾

九月初一日……聞日人擊破尙州梨亭東徒 蘇野接主崔孟淳逃走 餘黨皆散 其錢穀軍器 以萬數 盡爲日人所輸將去了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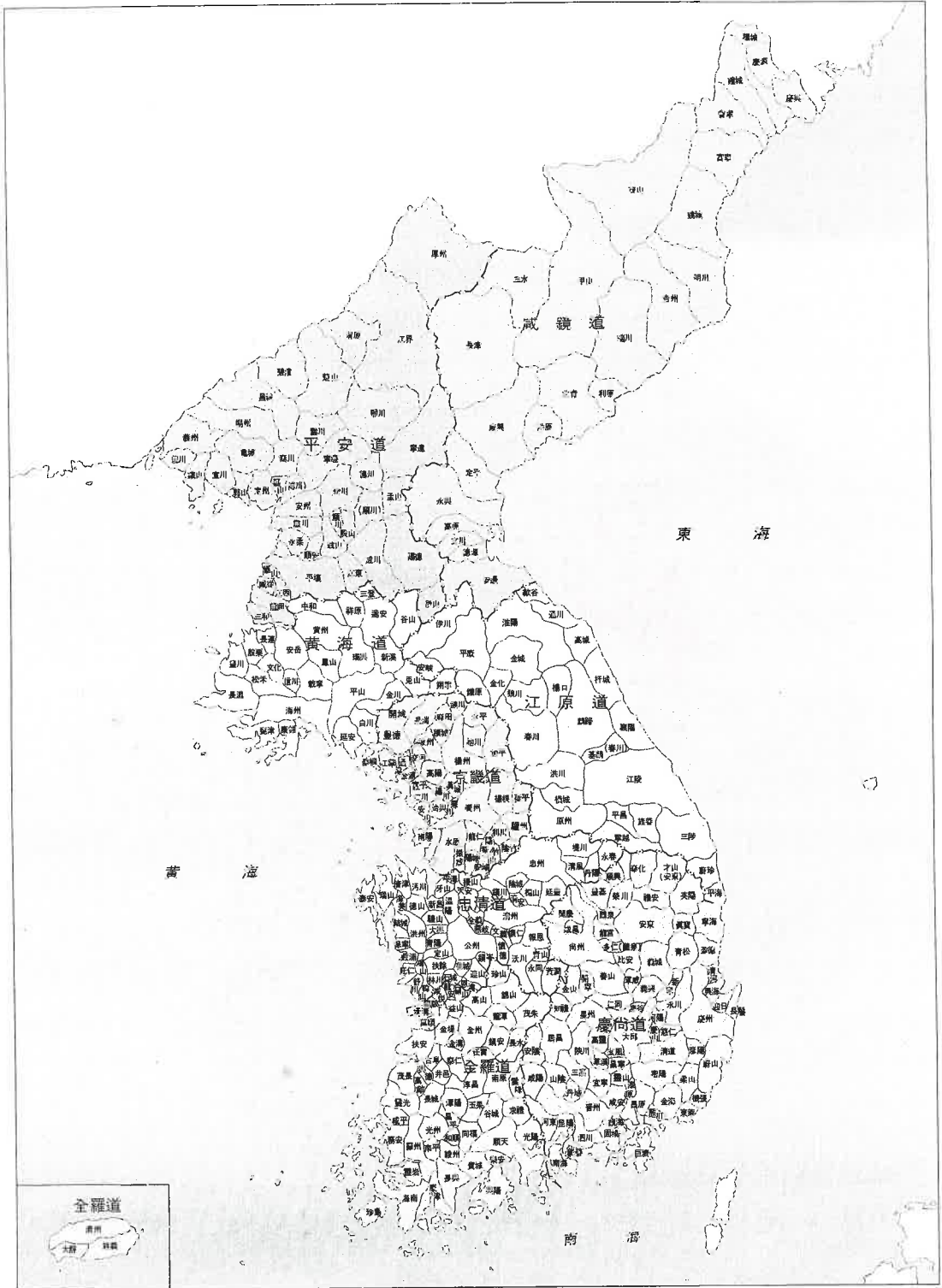
소야와 석문 그리고 이정(梨亭)은 석달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름과 지명이다. 그러나 석달리는 이 전란의 와중에서 비껴날 수 있었다. 산골에 있는 마을이기도 했고, 일본군과 민보군 그리고 뒤에 이 일대를 순회한 경상감영의 영군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로 알려진 곳만 수색했기 때문이었다. 예천 일대의 동학조직을 지휘한 관동대접주(關東首接主) 최맹순(崔孟淳)은 소야를 떠나 강원도 평창 등지로 피신했으나 다시 적성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다가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

석달리의 인천 채씨가에서 채홍우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했다고 전해온 것은 이런 정황을 미뤄보면 이해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세력을 결집한 것이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전투를 벌여 패배하였으며, 막대한 군수물자와 군자금을 일본군에게 탈취당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채홍우에 관한 전문은 이런 줄거리 속에서 파악이 될 수 있다.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釜山명참감에게 보낸 聞慶병참부의 보고. 이 때 파견된 일본군은 後藤 공병소위가 지휘한 공병 25명과 일본인부 12명이었다.

2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26~128. 聞慶近傍 東學黨과의 戰鬥報告.

24) 『갑오척사록』 9월 1일자.



[지도 1] 조선8도 지도

3. 1894년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예천공방전²⁵⁾

예천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내용을 전해주는 주요 자료는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²⁶⁾이다. 이 자료는 1895년 2월 예천의 집강소에 양향도감(糧饗都監)으로 참여했던 반재원(潘在元²⁷⁾, 1854~1921)이 민보군의 전 과정을 일기식으로 정리하여 남긴 기록이다. 또한 『저상일월(渚上日月)』²⁸⁾도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예천군 저곡면 맞질(渚谷; 현 용문면 대저동)에 세거하던 함양박씨가(咸陽朴氏家)에서 6대 122년에 걸쳐 기록한 역사일기(曆書日記)이다. 그 중 진사 박주대(朴周大, 1836~1912)가 기록한 1894년 5월에서 12월까지의 일기는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의 읍내 중심기사를 보완하여 外村의 사정을 전해준다. 박주대가 기록한 다른 자료인 『나암수록(羅巖隨錄)』²⁹⁾은 격변하던 당시의 국내정세를 관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연차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참고된다.

상주에서 벌어진 1894년의 사건들을 기록한 주요 자료는 『(소모일기(召募日記))』와 『소모사실(召募事實)』(乾坤 2册)이다. 『소모일기』는 외서면 우산리의 진양정씨(晉陽鄭氏) 종손인 정의묵(鄭宜默)이 소모사로 활동하던 1894년 10월 17일부터 1895년 1월 27일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한 개인일기이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소모영(召募營)의 설치과정, 상주 면리 지역의 민보군 조직, 낙동 일본군 병참부와의 관계, 호남·호서 농민군의 동정 등을 전해준다. 『소모사실』은 1894년 10월 16일부터 1895년 1월 25일까지 소모영에서 보내고 받은 공문서를 날짜별로 전제한 공문서집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상주와 예천 일대의 동학농민군의 자세한 봉기상황은 기록하지 않았다. 소모영이 성립된 뒤에는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있기 전에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가장 크게 전투를 벌인 예천공방전과 처음 일본군이 개입해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를 기습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농민군의 동향과 세력 증대

예천의 동학조직은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왕조정부에 의해 사교(邪教)로서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

25) 3장은 申榮祐, 1984 「1894年 嶺南 醴泉의 東學農民軍과 保守執綱所」 『東方學志』 44집을 토대로 작성된다.

26) 『갑오척사록』은 趙鍾業교수 소장본과 예천 鄭相益씨(醴泉邑 路上洞 17번지, 1982년 가을 作故) 소장본 2부 그리고 潘在元 후손 소장본 등 모두 4부가 있다.

27) 巨濟 潘氏는 高坪에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다. 潘在元의 字는 士善, 號는 小觀(『巨濟潘氏大同譜』)으로 재주가 많아 潘才童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28) 『저상일월』은 歷書 위에 쓴 草書體本이다.

29)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료총서 제 27권.

세를 확대해나갔다. 1894년 봄에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한 뒤 예천에서도 급속히 세력을 팽창한 것은 이 같이 기반 확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천의 주요 동학근거지는 동로면(冬老面) 소야리(蘇野里)³⁰였다. 소야는 마을 뒤로 커다란 산봉우리들이 연이어 있는 천연의 피난지로서 동학이 은거지로 삼기에 적합하였다.

예천 일대의 동학은 최맹순(崔孟淳)이 이끌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용기상³¹으로 가장하여 주변 각 마을의 동학 조직을 연결하고 교세를 키운 인물이었다. 1893년 봄에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공인을 요구하면서 벌인 보은집회 이래 교세는 크게 증대되었다. 최맹순은 1894년 3월부터는 소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집 조직을 확대 설치하고 농민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불과 수개월이 지나서 여음이 되면 그 수는 7만여 명에 달하게 된다. 수접주를 칭하게 된 최맹순은 면리단위까지 나가서 설점지역을 늘려 갔는데 48점소나 되었다.³² 예천과 용궁 일대에 설치된 도소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표현되었다.³³

영남은 동학의 발생지로서 1860년대 초부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한 지역이었으나 탄압을 받으면서 세력이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은도기에 제2세 교주 최시형은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줄기 양편지역을 왕래하며 영남 북서부 일대에서 교세를 재건하였다.³⁴ 그래서 1894년 당시 상주·감산·예천 등지에는 입도한지 수십 년이 되는 교도들이 많았다.

동학은 엄격한 신분질서 아래에서 억눌려 살아왔거나 가난하게 살아오던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어느 마을에는 한 마을주민들 거의 모두가 동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³⁵ 신분 갈등과 빈부대립 그리고 관아의 지나친 조세수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30) 冬老面 蘇野里는 농민군 진압 후 東老面 蘇野里로 면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 소야는 된봉 아래 仁同 張氏와 江陵 崔氏가 중심이 된 마을로서 최근까지 130여호가 있던 큰 마을이다. 소백산맥 험준한 산골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전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31) 天主教徒들과 같이 예천의 東學教徒도 관아의 탄압을 피해 용기상으로 가장하고 있었다. 소야 근처의 大下里, 新平, 縣里에는 좋은 용기가 생산되었다고 한다.

32) 『갑오척사록』 “今年三月 分設接於本郡蘇野地 無論他道本道 誘募徒黨 爲七萬餘名 地狹類多 出接各處 爲四十八所” 崔孟淳은 關東首接主를 칭하고 있다. 동학조직은 入道시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져 최맹순은 영남에서 활동하면서도 關東都接主의 예하에서 입도했기 때문에 그 계통을 따르는 직함을 사용했다.

33) 『저상일월』 7월 29일자

34) 崔時亨은 崔濟愚의 명을 받아 1862년 3월 寧海·盈德·尙州·醴泉·淸道등지를 순회하여 많은 道人을 얻었으며(『천도교창건사』 第二編 第一章), 1864년 3월 道通을 전수받은 후에는 소백산맥 줄기의 양쪽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의 산간지방 즉 安東·平海·蔚珍·丹陽·旌善·尙州·醴泉·金山·英陽 등지에서 修道와 傳道에 전념하였다.(第二編 第二章). 이 지역이 후에 북점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게 되고 예천의 수접주가 최시형의 『金石之典』을 극단적으로 따르는 것도 그 때문으로 추측된다.

35) 지리산 기슭의 德山·三壯·矢川·靑巖·沙月은 마치 동학촌과 다름 없어 班常을 가릴 것 없이 온 마을사람들이 동학교에 들어있었다고 하며(『주한일본공사관기록』), 예천의 蘇野·花枝 및 상주의 여러 마을도(『소모사실』 『토비대략』) 그러했다.

영남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여러 해 동안 극심한 자연재해로 시달리고 있었다. 조정에 보고된 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1894년 영남농민들은 최악의 한재(旱災)를 당하고 있었다.³⁶⁾ 잇따른 흉작에 겹쳐진 이 한재로 인해 사망을 떠돌고 있었던 농민들이 농민군에 가담해 왔다.

3월 이후 호남·호서와 인접해 있는 각 군현의 동학농민군 세력은 관아와 지배층을 압도하였다. 북서부의 안동·의성·예천·봉화·용궁·문경·함창·상주·개령·지례·성주·김산과 남서부의 함양·하동·곤양·사천·고성·단성·진주·남해 등지에서는 농민군세력이 광범하게 결집된 위에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군의 지원도 받았다.³⁷⁾ 반면 안의·거창과 함양은 선정을 편 수령³⁸⁾을 중심으로 지배층이 결속해서 농민군을 진압하여 평온했으며, 동남부 여러 지역 및 바다를 낀 동부와 남부지역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조직적이지 않았다.

영남 북서부의 동학농민군 세력은 읍내 중심의 지배층을 압도하였지만, 호남과는 달리 왕조정부의 지방통치를 부정하는 읍내점거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지역의 동학 조직이 북접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접교단은 관치질서를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포교 활동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농민군의 사회운동 또는 무장봉기는 단호하게 금지했다. 만약 법소(法所)와 포덕소(布德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취당(聚黨)하거나 부가(富家)를 약탈하면 제명시키거나 관에 알려 처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시형은 무장봉기를 금지하는 통유문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다.³⁹⁾ 대접주들은 이러한 교단

36) 『갑오이후일기』 “甲午自春以後大旱 乾亢之處 皆不移秧 代播亦爲枯損 而東徒大熾”

『別啓』甲午十一月日 封啓. 국왕에게 보고된 이 封啓에 의하면 영남은 5월 이후 크게 가물어 大川이 끊어지고 저수지에서 먼지가 일 정도였다고 한다. “道旱災 必稱丙子癸未戊子 以今年之旱 殆有甚於丙癸戊等年矣 三農同艱 五穀卒瘁 甚至以初不播種 反謂之得” 그래서 영남 71읍을 피해 정도로 나누어 尤甚은 慶州·昌原·晉州·星州·大邱·蔚山·金海·寧海·密陽·東萊·善山·仁同·漆谷·河東·巨濟·固城·草溪·興海·梁山·咸安·飛揚·金山·盈德·南海·宜寧·清河·鎭海·丹城·迎日·長기·靈山·昌寧·泗川·機張·熊川·慈仁·漆原 37읍을 들고 있고, 之次는 安東·尙州·淸道·永川·醴泉·陝川·義城·慶山·開寧·河陽·龍宮·彦陽·眞寶·知禮·高靈·玄風·軍威·義興·新寧·三嘉·比安 등 21읍 그리고 稍實은 靑松·順興·居昌·開慶·咸陽·永川·豊基·奉化·咸昌·山淸·禮安·英陽·安義 등 13읍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차이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다.

37) 이 중 농민군이 읍내를 점거했던 군현은 龍宮·咸昌·尙州·善山·知禮·星州·咸陽·河東·飛揚·晉州·南海·固城 등지이다. 『갑오척사록』 『승정원일기』 『토비대략』 『別啓』 『주한일본공사관기록』 『狀啓』(崔熙熙, 『韓國古文書研究』, 119~121쪽) 『慶尙道關草』 제4책, 『書契所報關錄』 제3책(『각사등록』 13)

38) 안의현감 趙元植, 거창부사 丁觀燮이 바로 그들이다. 안의는 현감의 轉任조차 읍민들이 반대하였다.

39) 1894년 8월 최시형은 여러 차례 효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11조로 정리하여 각포에 퍼서 「永爲金石之典」을 삼으라고 엄명하고 있다.

- 一. 各包事務는 當該主司와 別任의 지위에 좃을 事
- 一. 修身行事는 반드시 忠孝로 根本을 삼고 居家執事는 耕讀을 힘쓸 事
- 一. 人塚을 勒堀하고 錢財를 強奪하는 자는 實情에 따라 官에 稟하여 죄를 科할 事

의 농민군 지도원칙에 따라 농민군이 화적과 다름없이 작당(作黨)하여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원칙은 말단 집에 소속된 농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신입(新入)」 농민군⁴⁰⁾은 반상(班常)의 차별을 부정하는 동학에 가담해온 것이며⁴¹⁾ 폐정개혁의 기치 아래 결집했던 것이다. 이들은 면리 단위의 집에 소속되어 그들이 장악한 마을에서 향촌질서를 재편하고 있었다.⁴²⁾ 그리고 구원을 이유로 수십 명씩 작당한 농민군은 지주·향리층에 대해 사사로운 보복도 자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주들을 통하여 교단의 활동방향 전환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⁴³⁾ 최시형은 영남의 지역에서 농민군이 읍내를 공격하고 있는 시기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무장봉기는 여전히 엄금하였다. 영남 북서부의 접주들은 교단의 지도원칙과 농민군 내부의 방향전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천의 사례는 그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천의 농민군은 읍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쉽게 점거할 수 있었지만 소야수접주 최맹순은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하 농민군의 지주·향리에 대한 투쟁도 교단의 지시에 따라 금지시켰다. 예천 일대의 농민군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 그는 유천접주(柳川接主)가 유천접 소속 농민들과 작당하여 지주가를 약탈했다고 하여 죄안(罪案)을 작성해서 읍내의 관아에 압송하고 처벌을 의뢰할 정도였다.⁴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천의 농민군은 수접주의 이같은 지시에 그대로 순응만 하고 있

-
- 一. 各包教徒가 黨勢를 믿고 마땅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가져서는 안될 財物을 도리어 求索하는 지는 嚴히 懲罰을 行할 事
 - 一. 어떤 사람을 莫論하고 오래된 빛이나 最近의 빛은 절대로 간섭하지 말 事
 - 一. 他包教徒가 혹 侵勒의 弊가 있으면 法所에 指名馳報할 事
 - 一. 各包 教徒가 法所와 布德所의 文憑을 가지지 않고 恣意로 聚黨하는 지는 즉시 除名할 事
 - 一. 無理한 일로써 詰難하며 毆打하는 지는 가히 同門教友로써 待遇할 수 없으니 鳴鼓하여 各包에 回示할 事
 - 一. 주정하며 賭技하며 騙財는 것은 결코 教人의 行爲가 아니니 만약 曉諭하여 좃지 않는 지는 영원히 除名할 事
 - 一. 官令에 服從하고 公稅를 제때에 納付하도록 힘쓸 것이며 箠毆에 獲罪하지 말 事
 - 一. 各包事格은 大小를 勿論하고 法所와 布德所의 指諭에 따라 삼가 奉行할 事
- 天道敎史編纂委員會編, 1981. 『天道敎百年略史』上卷, 246~248쪽. (이는 『侍天敎宗釋史』 『侍天敎歷史』의 같은 내용을 번역해서 인용한 것이다.)

40) 「신입」 농민군은 이른바 「市井童昏 平民 藏獲 雇傭 等輩」였다. (『갑오척사록』)

41) 농민군 지배지역의 향촌질서 변화상은 홍성찬, 1983 「1894年 設包하의 鄉村事情」 『東方學志』39 참조. 金山 儒學 崔鳳吉은 『세장년록』 甲午 3월 11일자 일기에서 “入其道者 無班常之別 雖皮無下賤與士夫 俱入則相敬相拜 互稱 接長 甚至私家奴隸 與其上典亦然 “과 같이 영남의 그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42) 이 시기 유생들이 기록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凌辱長官士夫 劫掠村閭 掠奪 錢財 盜竊軍器 驅人驢馬 掘人墳塚 報其私嫌 牢縛毆打 往往殺人” (『갑오척사록』)과 같은 내용이다.

43) 6월의 星州 읍내 공격에는 김산·상주 및 충청도 농민군까지 참여하고 있었다. 『토비대략』·『別啓』

44) 『갑오척사록』 8월 11일자 “蘇野接主押送柳川接主趙成吉 錄送其罪案 已爲鳴鼓罰案 願加任意措置”, 8월 12일자

지는 않았다. 농민들은 오래 동안 쌓여온 지배층에 대한 원한을 농민군의 조직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예천의 23개면 가운데 농민군에 집중 가담해온 지역은 동로·유천·개포·저곡면이다. 동로면은 읍내와 서북 90리 거리의 외지이며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와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충청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농민군이 일찍부터 장악했다. 그렇지만 유천·개포·저곡의 농민들이 대거 농민군에 가담하는 배경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누적되어 온 불만이 있었다.

화지(花枝)에는 여러 대에 걸쳐서 사족 출신의 파평윤씨(坡平尹氏)가 집단마을을 이루고 살아왔다. 윤씨는 토성이 아니었고, 당쟁의 화를 피하여 다니다가 비옥한 토지가 있는 화지에 이주하여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론계열의 파평 윤씨는 남인 일색인 예천·안동의 양반들과 당색(黨色)이 달랐기 때문에 교류와 통혼을 하지 못했다. 또한 향시에도 응시하지 못하여 향반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다.⁴⁵⁾ 사회 활동이 봉쇄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파평 윤씨는 유교 교양을 바탕으로 독농(篤農)을 하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하게 되었다.

유천면 일대에는 좋은 밭이 많았다. 이 밭에는 상주·의성·예천 등지의 농민들이 상업 작물로 크게 재배했던 목화를 심었다. 화지만만 아니라 고산·성평·후평 및 광전동의 너른 밭에서 면화가 대대적으로 재배되었다.⁴⁶⁾ 수확된 면화는 부인들이 옷감을 짜서 보부상에게 팔고 이것은 다시 강원도 방면으로 팔려나갔다.⁴⁷⁾ 유천면에는 면화를 전업 재배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여 성장해가는 농민이 많았다.⁴⁸⁾ 이들은 또한 오래 동안 이 지역 농민의 수익성 있는 작물이었던 닛나무도 심었다. 닛나무의 껍질은 종이 원료로 김룡사에 공급되었다.⁴⁹⁾ 따라서 소작농 가운데 토지를 매입하여 부농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되자 예천 관아에서는 이 지역을 주요 수취대상으로 삼았다. 조세수취를 담당할 향리는 아예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토색에 나섰다.⁵⁰⁾ 읍내의 지주와 양반들도 이에 가세하여 지대의 남징⁵¹⁾과 토호⁵²⁾

“嚴杖趙成吉 鳴鼓徇市”，8월 13일자 “放送趙成吉及柳川東徒七人”.

45) 200년내 花枝의 윤씨 중에서 進士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46) 읍내의 尹泰瞻씨(58세)와 花枝의 前洞長 尹熙木씨(56세)의 증언.

47) 花枝에서는 무명생산을 보명(무명) 밭내이(생산)라고 하는데, 일제 치하에도 등짐장사가 예천 일대에서 면포를 받아다가 강원도나 함경도에 가서 팔았다고 한다. 적은 양을 팔아도 오고 가는 길에 민가에서 무료로 숙식했기 때문에 일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본래 綿布 1필은 40자, 苧布 1필은 32자였는데 在來綿의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면포는 37자로 줄어졌다. 일제 치하 항일의식이 강했다는 화지 사람들은 陸地綿은 거부하고 재래면을 오래 재배했으며, 노인이 돌아가실 때는 “일본놈 육지면을(수의로) 쓰지 말고 재래면을 쓰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48) 한 사람이 5일 동안 일하면 면화 1필을 짤 수 있었는데 3필이면 해방 후에도 논 한 마지기를 샀다. 따라서 면화 재배로 살림이 꺾져서 柳川面에는 小作이 줄어들었다.

49) 金龍寺의 경제활동과 예천·문경주민의 관계는 주목된다. 蘇野의 崔鍾結씨도 소야일대의 토지는 일제하까지 金龍寺 大成庵의 소유지로 소작료는 암자까지 농민들이 직접 納租했다고 전한다. 金龍寺에는 큰 규모로 종이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원료로서 柳川·開浦·瀋谷의 垆田에서 닛나무가 경작되어 공급되었다.

를 일삼았다. 사회 기반이 약한 윤씨마을은 집중공세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까지 촌로들 사이에 구전되어올 정도이다.

이런 사정은 저곡면 금곡(金谷, 금당실) 주변과 개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지역에서도 면화와 닥나무 재배는 성행했는데 읍내의 관아와 지주들이 지나치게 수취함으로써 마찰을 빚고 있었다. 잔반과 부농의 불만은 더욱 심했다. 금당실은 이른바 십승지(十勝之地) 중 하나로서, 소백산맥 산줄기를 북편으로 하고 영남의 산간지역으로는 꽤 넓은 들이 펼쳐진 작은 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금당실에는 16세기 초 이래 명당을 찾아 이주한 함양 박씨가 양반마을이 이루어져 당시까지 12대 370여년 동안 세거해오고 있었다.⁵³⁾

함양 박씨가도 영남의 다른 양반가와 같이 관료로의 길이 막힌 지가 오래되어 당시에는 향반으로 퇴락하여 있었고, 금당실 일원의 많은 토지는 대지주 소유가 되었다. 금당실 주변 마을의 빈농은 물론 함양 박씨의 잔반 중에서도 그 토지를 소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읍내의 지주들 가운데 소작료를 가혹하게 징수한 사람은 이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다. 독농으로 성장하던 농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동학에 의한 조직을 갖게 되고⁵⁴⁾ 마을을 횡행하면서 지주 향리층을 제압하기에 이르자 종래의 반감을 드러내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읍내의 향리들은 공무를 위한 외출 출입도 꺼려할 정도였다.⁵⁵⁾

영남 농민군의 활동이 격화되는 것은 6월 말부터이다.⁵⁶⁾ 일본군에 의한 경북궁 「쿠데타」 소식이 전해지고 청·일군이 개전하는 등 급박해진 정세 속에 민족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영남의 농민군은 즉각 봉기하여 각지에서 취회하고 있었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병참기지를 건설한 일본군이 상주 낙동과 함창 태봉 그리고 문경에 병참부를 설치하자⁵⁷⁾ 영남 북서부의 농민군을 크게 자극시키게

50) 花枝가 읍내 향리의 討索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화지주민이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야기다. 화지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동산, 남산에는 衙前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였다. 同姓集團마을이기 때문 族徽의 폐가 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윤씨들의 저항도 격심했다. 관아에 잡혀가서 항거한 이야기가 후손들 사이에 전해진다.

51) 邑內 大地主 가운데 지나친 소작료 수취로 유명한 李三文의 토지가 많이 있었다. 昌原 黃氏의 토지도 화지일대에 50마지기가 있었다고 하는데(尹泰瞻씨) 이는 농민군 진압 후 몰수한 토지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52) 鄉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농민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즉 화재를 막기 위해 밤늦게 불을 키지 못하도록 한 규약이 있으면 한 밤중 해산한 집에 불을 켜진 것까지 트집잡아 贖錢을 강요했다. 또 法興長이라고 불리웠던 安東 法興洞의 固城 李氏도 醴泉 일대에서 지나친 土豪로서 이름 높다.

53) 『咸陽朴氏世譜』金谷系. 예천의 兩班姓으로는 咸陽 朴氏家가 가장 세력이 컸다. 당시 鄉廳의 座首도 咸陽人 朴義鎭이었다.

54) 金谷의 朴魯文翁은 咸陽 박씨 중 接主를 한 朴永洙가 豊基서 체포되어 대구에서 6개월 형을 언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55) 『갑오척사록』8월 19일자. “各處盤據 數月騷擾 邑吏怯於出面”

56) 영남농민군의 봉기는 6월말의 경북궁 「쿠데타」와 9월의 北接起包습을 전기로 하여 격화된다.

되었다. 동학농민군은 낙동·태봉의 일본군을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화승총이나 창칼로 무장한 농민군이 청군을 일거에 격파한 일본군을 쉽게 상대할 수는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신식무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읍내에 보관된 무기에 관심을 돌렸다. 각 군현의 창고에는 군기시·총융청에서 분급한 조총·화약·연환이 보관되어 있었다.⁵⁸⁾ 영남 북서부의 농민군은 읍내의 지배층에게 [척왜(斥倭)]의 민족 공동목표 아래 합세하여 일본군과 대적(對敵)하자고 요구했다.⁵⁹⁾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읍내의 부력(富力)과 무기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 시기 읍내의 지배층은 오히려 농민군의 읍내 범접을 막기 위해 민보군(民堡軍)을 결성하고 있었다. 유생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일본군이나 개화파에게 강한 반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지배층의 입장에서로는 향촌사회에서 폐정개혁을 추진하던 농민군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지배층이 결성한 민보군은 일본군에 적대하기보다 군사(軍資)를 위해 부민의 전재(錢財)를 탈취하는 농민군을 체포하여 화적혐의로 투옥하였다. 따라서 읍내만 고수하고 있던 지배층과 외면에 가득한 농민군 사이에는 점차 긴장감이 높아갔다. 외적을 앞에 두고 심화된 민족 내부의 계층 간 대립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도 예천의 사례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94년 여름 영남 북서부는 읍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민군의 지배 아래 있었다. 농민군 지배지역에서는 교단에서 파견한 검찰관(檢察官)·안렴사(安廉使)가 폐정개혁을 주도했다. 그리고 민심도 이미 농민군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詞訟盡歸於蘇野 官府卽寂然而已 又東徒檢察官 張克元者 徇行各邑 稱以禁暴 反多貪饕 行李隨率 擬於道伯 所到處 風威如虎 訴訟者如市⁶⁰⁾

十四日...聞包事自保恩調停 或云舉事...東學按廉使 姜華山來自豐基⁶¹⁾

57) 일본군의 釜山兵站監 관할 兵站線은 釜山·密陽·大邱·多富驛·海平·洛東·台封·開慶·忠州·可興·利川·安保·河潭·長岩·島硯·昆池岩·松坡鎮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慶尙道關草』 제4책(『각사등록』 13).

尙州 召募使 鄭宜默은 일본군이 50리마다 병참소를 설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午到多富院 日人還立望見 或嬉笑或窺視 未知何故也 蓋設站之所 繕兵積粟 五十里爲一站 自萊至京 自京至義 非徒千里連營而已” (『소모일기』 11월 17일字)

58) 『慶尙左道內各邑丁丑條月課鳥銃火藥鉛丸受來衙門區別成冊』, 軍器寺는 조총을, 摠戎廳은 화약 연환을 각 군현에 지급하고 있다.

59) 8월 이후 예천·안동·진주에 보내진 通文·布告文 등은 보수지배층에게 對日抗戰에의 합세요구가 주요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군에 의해 즉시 파악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0) 『갑오척사록』 8월 20일자.

농민들은 소송(詞訟)이 있어도 관부(官府)를 찾지 않고 동학조직에 호소하여 처분을 기다렸으며, 검찰관 장극원(張克元)이 도백(道伯)을 방불케 하는 행리를 하고 각군을 순행했는데 이르는 곳마다 소송자가 모여들어 저자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풍기·예천 등지에는 동학안렴사 강화산(姜華山)이 순회하고 있었는데 농민군의 포사(包事)는 이들을 통해 보은의 교단과 협의하여 조정했으며 거사 등은 그 같이 하여 결정되었다. 농민군은 조직상 접 단위로 활동하여 각 조직이 한 지역에서 별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경우도 있었다. 교단에서 파견된 검찰관은 이를 막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을 것이다.⁶²⁾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정부의 지방권력과 지배층이 농민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었다. 최맹순은 다음과 같이

四海之內 今日入道則 明日兄弟 布德修行 廣濟蒼生 是所本意 而哀彼蠢氓 難耐官需之加斂也 吏校之討索也 兩班之土豪也 難保朝夕 聽聞駭然 不勝慨歎 擇送知事接僚 巡行各邑 明正綱紀 禁斷豪悍者 亦前無後無 不得已事⁶³⁾

조세수취상의 문란과 말단권력의 지나친 토색, 그리고 중세적 신분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반들의 횡포를 농민군 봉기의 원인으로 밝히면서 농민군 지도자들이 지사·접료들을 파견하여 강기를 바로잡고 호한자(豪悍者)를 징치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6,7월 들어 예천의 농민군은 활동을 강화했다. 전비(戰費)를 마련하기 위해 부민들에게 전곡(錢穀)을 강요했으며,⁶⁴⁾ 합세하지 않는 농민들은 강제로 입도시켰다.⁶⁵⁾ 이 과정에서 소야수접주의 통제를 벗어나서 약탈을 함부로 하는 동학농민군도 나타났다. 대일항전을 이유로 헌납을 강요하건, 말단 접에서

61) 『저상일월』 8월 14일자.

62) 『동학사』. 吳知泳은 兩湖都察로써 南北接 간의 조화와 각 包들 끼리의 相爭을 금지하도록 책임을 맡는다. 예천 에도 蘇野接 뿐만 아니라 상주 功城接 소속 농민군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조직 간 알력·대립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

63) 『갑오척사록』

64) 『저상일월』에는 富家를 찾아다니며 戰費를 강제 징수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

65) 對日抗戰을 위한 무력강화의 방법으로 농민군이 각 마을의 농민을 동원한 사실은 여러 자료에 공통되나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에 전제된 晉州에서 나온 通文 기록은 그 구체적 사실을 보여준다. 再次私通 私通爲救弊事 大洞五十名 中洞三十名 小洞二十名 小小洞十名式 明日未午前 卽會于復興大峙牛地 是會若不出與遲滯則 先蕩任掌家及後洞是乎 則知此知委爲乎事 此亦中通文段一里卽 卽馳傳于二里事 哀我衆民 經十四五年文連凶 何以聊生 又七十七日大旱 哀我衆民 然中百弊層生 何以聊生 甲午九月初十日

자의적으로 약탈하건, 지배층은 이를 크게 우려했다.⁶⁶⁾ 관부(官府)의 권위로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다. 예천 읍내의 관아와 지배층은 농민군의 동정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었지만, 호남을 비롯하여 삼남 일대가 동학농민군에게 장악된 형편이었고 감영이나 조정도 수수방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예천관아는 실제 농민군을 견제할 만한 무력도 갖지 못했다. 『갑오척사록』에서

官砲軍則 只二十名.....東伍馬軍則 只是有名無實

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관포군은 불과 20명밖에 없었고 속오군도 제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 때까지 호남·호서 접경지역에서 관아와 지배층이 협력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은 안의·거창 두 군현뿐이었다.

而東徒大熾 橫行路 廢農業 討索閭里 雖謹慎之人 難以免其剝膚之禍矣 然惟安義居昌兩邑則 設捕捉東徒之條約 作守幕於村村 相應相聞之間 一境同然 東徒若入境 則一處一呼而一時一邑齊發 捕之捉之 逐之殺之 無敢入其境 可謂捕東徒之良策 而餘外近處各郡 則守令畏 而非惟不能捕捉 反或有護東者 遠近之邑村 不入東徒者無幾 而無處可以避其禍矣⁶⁷⁾

안의·거창 양읍의 수령은 선정을 펴 군민에게 신망을 얻었다. 따라서 수령을 중심으로 지배층 및 각 촌 마을의 농민들은 결속하여 약조를 정하고 각 마을의 긴밀한 유대 하에 경내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했다. 다른 군의 농민군도 합부로 침범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밖의 각군에서는 수령이 먼저 겁을 내어 농민군을 체포할 수를 내릴 수 없었다. 또한 농민군의 이념에 동조하여 「호동자(護東者)」로 여겨지는 지방관도 나타나고 있었다.⁶⁸⁾

선불리 농민군을 체포 처형한 군읍은 여러 군에서 집결한 농민군에게 집중 보복을 받았다. 9월 초 읍

66) 혼인을 통해 인척으로 얽혀있고, 수십년래 교류해온 영남 북서부 일대의 지배층 가운데 한 사람만 피해를 입어도 모두에게 곧 전해져서 큰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저상일월』·『세장년록』·『갑오이후일기』 등은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67) 『갑오이후일기』

68) 일본군이 우려하여 처벌을 요구한 東萊府使는 동학농민군을 맞아 환대하고 軍資까지 제공하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駐釜(日本)總領事電報 “本月二十七日 東匪首魁 安東金炳斗 河東崔達坤 來抵東萊 與府伯相會 府伯退人 密談數時後 置酒饗之 臨去 贈以府署所備之馬二匹 銅錢二貫 該兩人受之 遂向發程云”

嶺南 慰撫使 李重夏는 順興府使 李寬植을 역시 ‘護亂類’ 했다고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 『高宗實錄』 甲午 12월條(534a) “興府使 李寬植 任猾胥而公納無期 護亂類而衆憤益甚”

내가 함몰당한 성주가 대표적 예였다.

六月 賊陷晉州星州河東 燒毀官 劫汚婦女 無所不至⁶⁹⁾

星州諸吏 殺東徒數十 恐有後慮 招聚邑近洞民 日夜守直 東徒各起包率 各持銃槍四面雲集 幾乎萬名 留陣於代馬市 朝夕之供 自附近村擔任 民皆魚肉 星牧吳錫永慌 夜逃 諸吏亦散 四 匪類溱入府中 一時衝火 近千戶人家 三日連燒 煙霧長桓百餘里 不燼者 惟公 而已 諸吏家錢財 與布帛 與寶貨 與衣件 莫不偷竊埋地者⁷⁰⁾

영남 북서부의 농민군은 성주 관아에서 「동도수십(東徒數十)」을 처형하자 교단의 지시를 거역하고 김산·상주 농민군까지 합세하여⁷¹⁾ 무장봉기해서 읍내의 민가를 모두 불태우는 철저한 보복을 감행했던 것이다. 같은 달 읍내가 점거된 하동에서도 민가가 전소되었다.⁷²⁾ 이후 동학농민군이 강한 군현에서는 함부로 농민군을 탄압하지 못했다. 대구 감영의 인근읍인 성주가 불태워졌을 정도이니 다른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7월로 접어든 후 예천의 농민군은 빈번히 읍내를 출입하여 지주가와 향리가를 침범했다. 5일 밤에는 「동도 수십인」이 대지주인 전영장(前營將) 이유태(李裕泰)를 끌어내어 「박타기사(縛打幾死) 약취전재(掠取錢財)」하고 갔으며, 7일에는 읍리 황준대(黃俊大)의 제총(弟塚)이 보복 굴충되었으며, 9일에는 읍리 김병운(金炳運)이 끌려나가 심하게 맞고 그의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쳐졌다. 15일에는 우음동(于音洞)접주 박래헌(朴來憲)이 이끄는 농민군 수십여명이 경진가점(京津街店, 서울나들이⁷³⁾)에서 안동부사의 행리를 습격하였다. 농민들의 평소 감정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예천 관아는 읍내가 농민군에게 범접되거나 경내에서 상급지방관의 행리가 피습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배층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한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모두 잃게 될 형편이었다. 그것도 평소 그들이 지배해온 소작인·노비·외촌동민에게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 시기 양반지주들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지면지동도(知面之東徒)」였다.⁷⁴⁾

69) 『도비대략』

70) 『세장년록』

71) 여러 군의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활동하는 것은 종적 조직을 보여준다. 이 지역을 관할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는 상주대접주였을 것이다.

72) 성주와 하동은 농민전쟁기 읍내의 보수지배층이 가장 참혹하게 보복 받은 지역으로 高宗도 「克日調兵剿捕 先斬渠魁」의 엄명을 내린다. 『일성록』 甲午 9월 9일 壬午條.

73) 『중보문헌비고』(卷24 輻地考 12 道里)는 京城에서 동남방으로 부산까지 이르는 第四路를 문경의 新院站에서 豐山倉까지 30리, 풍산창에서 안동까지 30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金相文씨의 고증에 의하면 종래 안동에서 새재를 통해 서울로 왕래하던 길은 안동 - (낙동강 수로로 河回를 거쳐) - 서울나들이 - 금동 - 장승백이 - 花枝 - 꽃재 - 갈평 - 문경 - 새재였다고 한다.

예천에서 지구책을 강구하는 움직임은 농민군의 주요 보복대상이었으며 예천농민의 실제 지배자였던 향리층 속에서 시작되었다. 예천은 다른 군현에 비해 향리세력이 강력했다. 그들은 관아의 모든 실무를 장악한 세력으로서 상당수가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으며,⁷⁵⁾ 향교의 교생으로서 유학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⁷⁶⁾ 특히 창원 황씨와 단양 장씨는 대중(大宗)을 이루어 대대로 향직을 맡아왔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읍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농민군 활동을 견제할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것은 봉건정부의 지방통치와 지배층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유일한 지구책으로 합의된 것은 그들 스스로 민보군을 조직하여 읍내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크나큰 위협이 뒤따를 염려가 있었다. 농민군은 도처에서 봉기했기 때문에 조정이나 감영의 관군이 예천까지 파병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고, 주변 각군도 유사시 지원해 줄 형편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농민군에게 적대하여 읍내가 함락되면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 했다. 그런 위협을 예상하면서도 민보군 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정대일(鄭戴一)의 노력 때문이었다. 정대일은 한미한 가세에도 불구하고 창원 황씨와 단양 장씨의 아성 속에서 비범한 역량을 발휘하여 당시 관아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다.⁷⁷⁾ 경내의 양반지주층이 농민군의 공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정대일은 지배층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민보군 결성을 추진하였다.⁷⁸⁾ 일부 유생들을 포함한 읍내의 이민들은 7월 24일 객관 동료(東寮)⁷⁹⁾에 모여 일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군수 조원하(趙爰夏)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26일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집강소의 좌목인 집강 이하 여러 집사들은 관에서 차출하는 형식으로 선임하고 약조를 세워서 운영원칙을 정했다.

농민전쟁기의 집강소는 호남에서 폐정개혁을 수행하던 농민군 주도의 민정기관을 부르는 명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예천의 지배층은 농민군을 적으로 하는 민보군조직을 만들면서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 10월 말에는 상주와 선산의 향리들도 마찬가지로 집강소란 이름으로 민보군을 조직하고 있었다.⁸⁰⁾ 왜 상반된 성격의 조직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기존 연구에

74) 『갑오이후일기』雖平日相知之人 如水炭之不相容 欲謀害良善之人 惟恐不及 最長者 知面之東徒也

75) 尹熙木씨는 花枝에만 창원 황씨의 토지가 50마지기가 있었다고 하며, 「醴泉郡 南邑面 淸福亭 第二區 五枚之內 五 見取圖」와 「醴泉郡 南邑面 本洞 第一區 二枚之內一 見取圖」(1912년 6월 15일 작성)의 地主名에도 鄉吏姓이 상당수가 있다.

76) 예천의 鄉班이 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 鄉校는 鄉吏들도 입교하였다고 한다.

77) 鄭戴一의 강한 성격과 능력은 그의 증손 鄭相益씨 및 정상익씨와 친교가 두터웠던 박병용씨(전예천동아일보 지사장)로부터 전해 들었다. 또한 정재일의 子 鄭寅泰도 부친 못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예천의 노인들은 이야기 한다.

78) 鄭戴一은 이 공로로 뒤에 정부로부터 軍功을 인정받으며 慕忠祠에도 봉사된다.

79) 이 客館은 千坪 120평으로 醴泉邑 路下洞에 있던 것을 1927년 金碩熙가 路上洞 1번지 大昌中·高等學校로 이전 하여 본래의 木造瓦家 팔작집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내고장 전통가꾸기』

서 찾아 볼 수 있다. 집강소는 종래 향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향소의 집강제도에서⁸¹⁾ 발상되었으며 호남의 집강제도는 「전주화약 이후 봉건정부의 입장에서 (농민)전쟁의 수습방안으로 구상되어져 농민군에게 제시된 것」⁸²⁾이기 때문에 지배층이 농민군을 진압하는 기구로서 민보군 조직을 만들면서 집강소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 무리한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가진 세력이 주체가 되어 집강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호남이나 영남북서부의 농민군은 수취제도상 그리고 사회구조상의 모순 즉 농민들을 수탈하고 압박하는 제 문제의 개혁을 강기를 바로 잡는 일로 생각하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예천의 지배층은 그 반대로 농민군이

所謂東學者 出始以忽讒而起 終以悖逆而亂 訪我朝廷 背棄我聖道 劫掠我生民 假之以舉義 誘之以妖誕 脅之以強暴 綱紀隳喪 冠裳倒易⁸³⁾

하는 것으로 보고 「근수왕법(謹守王法) 각준관의(恪遵官意)」하여 구래의 향촌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했다. 요컨대 상반된 입장의 두 사회 세력이 개혁과 질서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집강소를 같은 시기에 설치하고 있었다.

2) 예천의 집강소와 농민군의 대립

집강소는 좌목과 약조를 정한 7월 26일부터 관아를 대신하여 치안 유지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부병(府兵)에게는 무장을 시켰다. 관아의 무기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이를 지니고 다녀 농민군이 읍내를 범접하면 대적케 했다. 이 날 읍내사정을 모르고 다시 이유태(李裕泰)의 집을 침범한 농민군 7명은 즉각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안동에서도 민보군이 결성되었다. 안동의 민보군 조직은 도총소(都摠所)란 명칭으로 불리웠는데, 결성사정은 예천과 마찬가지로였다.

安東都摠所答通來到辭曰…而晚近無賴不法之類 假稱東學 出沒於四境 逢人縛打 遇家剽掠 甚至於發掘人塚 幽明難支 梗塞道路 民邑莫保 一邑會議 作統備械 略設條約 以備不虞⁸⁴⁾

80) 『갑오척사록』 10월 22일자. 尙州吏民亦設執綱所 遣人問其設置條規

81) 瀨古邦子, 1979. 「甲午農民戰爭における執綱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82) 홍성찬, 위 논문, 68~69쪽.

83) 『갑오척사록』 前文.

또한 의성에서도 민보군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 세 지역의 민보군을 주도했던 세력은 조선후기 이들 지역을 실제 지배했던 층으로서 각기 대비된다.⁸⁵⁾ 예천은 시임 공형(公兄)과 공생(貢生)이 중심이 되어 집강소를 설치한 데 비해, 안동은 전직관리와 유생들인 전영장 김호준(金好駿), 전참봉 권재기(權載紀), 전오위장 김익장(金益張), 유학 곽종석(郭鍾錫)⁸⁶⁾이 도총소를 세웠으며, 의성은 유학 신면형(申冕濬), 이장희(李章繪) 등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의 읍내범접을 막고 있었다.⁸⁷⁾ 이들 지역은 추로지향(鄒魯之鄉)의 수부틀 자처하는 안동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보수세력의 강력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동학농민군 세력이 증대했던 상주·함창 간의 많은 사류들은 동적(東籍)에 탁명(托名)해야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⁸⁸⁾ 그렇지 않은 부자와 이름이 난 사람은 지목되어 피해를 받았다. 이는 농민군의 활동이 항일전쟁 준비로 집약되어 가는 시기에도 신분 경제면의 투쟁이 심화되어 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월 초 기록된 김산의 사정은 이를 잘 전해준다.

父不得禁其子 兄不得禁其弟……成群作黨 侵掠閭里 勒奪錢穀與布帛 私家奴隸 毆打上典 輿擡下賤 刑撻士夫 小怨必報 前恩不顧 人有難捧之債 必捧而分食 人有難掘之塚 必掘而示威 不入道者 指以執 曰俗子而毀道 率黨來脅 施以惡刑 或有碎頭折骨者 人不勝其刑 贖錢以幾許兩則 因得釋 若貧者則 雖毀道置之 無名者則 雖面駭亦置之 富人與有名者 獨被其害⁸⁹⁾

북부 3읍에서 동학농민군에 적대하는 민보군 조직이 결성되어도 교단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가급적 충돌을 피하였다. 그러나 예천의 말단집 소속의 동학농민군은 집강소가 치안을 장악한 읍내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읍내로의 통행을 막아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평소 규모가 상당하던 예천 읍내 장시는 장날이 되어도 내외 10리 사람만 모이는 등 한산해졌고, 읍민에게 공급되는 식량·땀감이 부족하게 되었다.

84) 『갑오척사록』 8월 25일자.

85) 농민전쟁 당시 각 郡縣에서 농민군을 진압한 주도세력(『甲午軍功錄』의 명단이 하나의 근거가 된다)은 조선후기 그 지역에서 실제 鄉權을 장악한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兩班層이 속수무책일 때 향리들이 먼저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을 진압해간 醴泉·尙州의 향리세력은 각 면에서 同姓마을을 이루고 있던 양반 세력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嶺右召募使 鄭宜默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소모일기』)

86) 평생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살던 만자 곽종석은 이 때 안동에서 지내다가 도총소 설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공으로 비안현감을 제수받으나 부임하지 않는다. 『俛宇集』

87) 이들은 모두 嶺南宣撫使 李重夏의 狀啓에 따라 軍功이 인정된다. 『別啓』 갑오 12월 11일 封啓.

88) 『淸上日月』 7월 29일자. 商咸間 多有托名東籍 畏其劫勒侵

89) 『歲藏年錄』

그러던 중 8월 초 예천에서는 양세력을 극한대립까지 몰고 가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농민군이 읍내에 거주하는 지주 4명을 보내라고 요구한 일이다. 8월 8일 적성접주 권경함(權景咸)은 저곡면 금곡동에 설접하여 권순문(權順文)을 접주로 삼은 후 농민들을 규합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내왔다.

方今布德于金谷 而四方多士 同聲相應 故茲以提通 邑中參奉朴琦陽 營將李裕泰 先達李三文 尹啓善四人 并爲起送云云⁹⁰⁾

박기양·이유태·이삼문·윤계선 4인⁹¹⁾은 당시 읍내에 거주하던 예천의 대지주였다. 이유태는 경상감사와 한성판윤을 지낸 민비 측근의 권력자 이유인(李裕寅)의 동생으로서 예천 일대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다.⁹²⁾ 그는 불법적으로 토지를 집적해왔으며 지주경영 과정에서 농민들과 갈등을 일으켜 농민군의 주요 보복표적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삼문은 소상인으로 출발하여 당대에 거부를 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부를 쌓았던 방법은 지주경영을 통해서였다. 이삼문의 지주경영은 가혹해서 지금도 예천에서는 이삼문의 땅을 부치는 사람은 갈수록 더욱 가난해졌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⁹³⁾

위의 통문 요지만으로는 지주 4인의 기송 요청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농민을 수탈해온 이들을 금곡접에서 스스로 징치하는 동시에 항일전쟁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군자금으로 바치도록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추측할 수 있겠다.

90) 『갑오척사록』 8월 8일자.

91) 현지조사에서 李裕泰·李三文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나 朴琦陽·尹啓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92) 『매천야록』(券之一上, 甲午以前, 69~70쪽)과 『大韓季年史』(185~186쪽)에 李裕寅이 본래 窮賤無賴로서 閔妃가 흑해있던 女巫 眞靈君을 奸智로 속여 母子關係를 맺은 다음 楊州牧使가 되었다는 소문을 기록하고 있다. 李裕寅은 慶尙監司를 지낸 것을 계기로 예천과 인연을 맺고 법부대신을 지낸 후 금당실에 99간의 저택을 지으면서 군민에게 강제 부역을 시키는 횡포를 자행했다고 한다. 그의 實弟 李裕泰는 그의 권력에 기대 예천 일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인색하게 지주경영을 했다. 李裕泰는 심지어 뒤에 예천농민의 통제책으로 李裕寅이 주선하여 만든 庚子鄉約에서 約正의 물망에 올랐으면서도 各錢조차 내지 않았을 정도였다. 『庚子鄉約座目』

93) 醴泉邑의 朴祥鎭翁은 李三文의 내력과 일화를 잘 알고 있었다. 李三文은 20대까지 등짐운반자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상인이 청어 한 짝을 위탁 판매시킨 후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의 토지는 예천 각면과 義城 등 인근 郡은 물론 전라도까지 걸쳤다고 하며 예천에서 가장 넓은 서정자들도 그의 소유지에 비하면 못자리(묘판) 면적 밖에 안 된다고 호언했다고 한다. 어쩌나 賸租를 엄격히 받았는지 “安都事(당시 인심이 후했던 지주) 땅을 부치면 부자되고 李三文 땅을 부치면 가난을 못 면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 요구는 많은 수의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기 힘든 문제였다. 그렇다고 농민군을 현실적인 적으로 삼아 설치된 집강소가 이 같은 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도 없었다.

이 문제는 지주 4인을 초회한 자리에서 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8월 9일 그 자리에서 여러 집사가 내린 결론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다음과 같은 답장을 금곡점에 보냈다.

本郡之有 若干兵備 匪爲他也 圖所以 禦暴客 共濟生民之意也……而但後錄中四人 係是部內之人 且皆饒 有儲蓄則 環四部內外 數萬生靈 性命之源 莫不賴茲而保 若無此人則 當初禦暴濟艱之計 竟歸虛無 且官司管轄之民 不敢自下擅便 故不得如教起送⁹⁴⁾

즉 지주 4인의 부력은 예천일대 수만 농민의 ‘목숨을 잇는 근원’ 이 되어왔기 때문에 집강소는 이들을 무력으로써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이는 향리층이 주도하는 집강소가 농민군의 지주투쟁을 전면에서 대항하고 나선 것이었다.

집강소의 보호를 받게 된 지주 4인은 그 대가로서 군자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양은 그의 소유지에서 나오는 금년 가을의 도지까지 집강소에 일임하고 있다. 대일향전에 지주의 군자금 헌납을 기대한 농민군의 의사와는 달리 집강소와 대지주의 결탁이 이루어짐으로서 지주의 부력은 농민군을 적대하는 집강소의 군자금으로 방조되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집강소가 「동도(東徒)」 11인을 체포하여 화적죄로 「매살(埋殺)」한 것이었다. 8월 9일 밤3경 「화적 수십명」이 밤을 타서 노략질하고 있다는 북부 구산동민의 적경(賊警)이 있자 즉시 부병을 파견해 감천(甘泉)의 경계까지 추격하여 「화적」 11인을 체포해 왔다. 이들이 휴대한 조총·환도·철퇴도 압수되었다. 체포된 농민군은 오히려 문초하는 부병을 협박하고 나섰다. 농민군의 우월한 세력에 자신을 갖는 태도였다. 즉 “우리는 모두 동학도인데 우리를 죽인 후 너희들이 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나(我等皆東人 殺我之後 汝等豈敢生乎)”는 것이었다. 수백여 부병이 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항거하자 집강소의 유사들은 격분하여 지체 없이 한천가로 끌고가서 「매지사장(埋之沙場)」해버렸다.

생매장을 당한 「화적」들은 금곡의 「동도」들이었다. 금곡점에서는 그 날 즉시 통문⁹⁵⁾을 보내 지난 밤 체포된 11인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집강소는 무기를 소지한 이들의 행적을 보면 화적임이 명백하기

94) 『갑오척사록』 8월 9일자.

95) 예천의 사례에서 보는 특징의 하나는 농민군과 집강소가 통문을 통해 양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8월 8일 赤城接主의 통문에서 시작되어 8월 28일까지 농민군측이 13번, 집강소측이 9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로써 사건의 진행과 양측의 주장을 알게 된다.

때문에 순영(巡營)의 지침에 의해 거주성명도 묻지 않고 즉일로 매살(埋殺)했다고 회답했다.

○農民軍이 執綱所에 보낸 통문

| 회수 | 날짜 | 보낸 측 | 내 용 |
|----|-------|-----------------|--|
| 1 | 8월8일 | 赤城집주 權景威 | 지주 4인을 지명하여 起送요구 |
| 2 | " 8일 | 退致집주 朴顯聲 | 체포된 柳川東徒 7인의 방송 요구 |
| 3 | " 9일 | 柳川집주 趙成吉 | 유천동도 7인을 방송하지 않으면 소야집주에게 알린다고 통고 |
| 4 | " 10일 | 金谷布德所 | 화적죄로 체포된 11인의 放遣을 청함 |
| 5 | " 11일 | 蘇野수집주 崔孟淳 | 유천집주 조성길을 압송하고 죄안을 錄送 |
| 6 | " 11일 | 金谷布德所 | 接중 見關者가 5인인데 대조를위해 捧摺시 草記姓名한 것을 알려달라고 청함 |
| 7 | " 14일 | 蘇野수집주 崔孟淳 | 淸福亭道人 在囚者를 즉시 방송하라고 강력히 요구 |
| 8 | " 15일 | 蘇野수집주 崔孟淳 | 殺人首倡者는 償命之律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통고하고 집강소를 설치한 사실을 추궁 |
| 9 | " 15일 | 商東집주(尙州東接) | 淸福亭道人 18인은 商功接(尙州 攻城接) 소속임을 밝히고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강경한 언사로 위협 |
| 10 | " 19일 | 金谷布德所 | 保國安民이 농민군의 제일선무라고 말하고 秋務를 위한 簿吏의 看坪은 공정히 하라고 요구 |
| 11 | " 21일 | 關東대집주등 13 집주 | 11인 埋殺에 책임있는 渠魁幾名을 압송하지 않으면 읍내를 공격하겠다고 정식통고 화지에 部兵 수백명이 침범한 것을 |
| 12 | " 24일 | 花枝都會 | 悖慢한 언사로 책망 |
| 13 | " 28일 | 花枝都會 | 읍내공격 직전 斥倭에 합세하기를 촉구하며, 읍내에서 농민군이 도회한다고 선언 |

○집강소가 농민군에게 보낸 통문

| 회수 | 날짜 | 받은 측 | 내 용 |
|----|-------|---------|---|
| 1 | 8월9일 | 金谷布德所 | 집강소의 병비는 兪禦暴客 共濟生民 뜻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地主四人起送을 거절 |
| 2 | " 10일 | 金谷布德所 | 체포한 화적11인은 巡營門의 火黨剿之 甘飭에 따라 거주성명도 묻지않고 즉시 埋殺했다고 회답 |
| 3 | " 11일 | 金谷布德所 | 화적의 거주성명을 묻지 않았다고 다시 회답 |
| 4 | " 15일 | 蘇野수집주 | 죄의 유죄를 따지지 않고 埋殺했다는 추궁에 반박하고 尙威龍 및 충주농민군 5천여명의 山陽聚會를 말한 다음 읍내 兵備의 정당함을 주장 |
| 5 | " 15일 | 商東接 | 淸福亭 接人의 懲治는 집강소 약조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 |
| 6 | " 19일 | 金谷布德所 | 憂國濟民之道는 儒道 이상의 것이 없으면 농민군이 각처에 盤據하여 수개월 소요가 계속되어 읍리가 出面하여 公務를 못보고있다고 회신 |
| 7 | " 21일 | 13집 都會中 | 화적의 처형은 朝令에 따른것이니 도적을 위해 雪怨한다면 「雖死無悔라고 답신 |
| 8 | " 25일 | 蘇野집주 | 21일 蘇野로 간 使者가 未歸했으니 放送해 달라고 청하고 각집이 화지에 都會하는 것을 우려 |
| 9 | " 28일 | 花枝都會 | 척왜는 朝家에 관계된 일이니 집강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며 作罪 2인은 보낼 수 없다고 거절 |

『갑오척사록』은 집강소의 통문내용은 거의 전재했으나 농민군의 통문은 요지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를테면 斥倭문제는 내용상 이전부터 대립되어온 주장인데 8월 28일자 양측 통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집강소 설치 후 불안하게 유지된 예천의 평온상태를 과국으로 몰고갔다.

소야수접주 최맹순은 14, 15일 연이어 통문을 보내 청북정 도인(道人)의 피형과 「동도」 11인의 매살 사건에 경고를 발하고 있다.

淸福亭道人 在囚者 卽爲放送則已 不然則 必有大端生梗矣……近聞 新入無賴之類 籍托道人 能行不義 埋死於貴邑 駭惡莫甚 然不計罪之有無 無難戕名 是豈忍爲哉 殺人首倡 難免償命之律是遣 又聞自貴邑 嘯聚徒黨 煽動衆心 是豈爲民之本意乎 當此秋成在邇 豈無失業之難耶 到卽布諭邑村 安堵如故 無使騷擾幸甚⁹⁶⁾

이 통문에서 최맹순은 「신입 무뢰지류」가 도인을 빙자하여 불의를 행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알아보지도 않고 11인이나 일거에 매살한 것은 살인이니 그 수창자는 「상명지율(償命之律)」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다. 집강소에 대한 경고통문은 상주 동접에서도 보내왔다.

貴邑淸福亭道人十八人 卽商功接(尙州功城接) 受道之人 而其中七人 被刑於貴所云 不知道人而然歟 更勿侵犯

자못 호통조로 도인일 줄 모르고 형벌에 처했느냐며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농민군이 우세한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통문이었다. 이 당시 영남 북서부의 가장 강력한 농민군조직인 상주의 농민군⁹⁷⁾까지 압력을 가해오자 집강소는 굴복하여 곧 청북정 도인 7명을 석방했다.

북부 3읍에서 농민군을 적대하는 민보군이 결성되어도 농민군지도자들은 이에 즉각적인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때 동학농민군이 제1의 적으로 생각한 것은 일본군이었다.⁹⁸⁾ 8월에 접어든 후 영남에 주둔한 일본군의 활동은 기민해졌다. 대구·달성에서 칠곡 등지로 인부를 모집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수는 1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이었다.⁹⁹⁾ 이를 주시하면서 읍내를 점거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예천의 집강소가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처형하자 격분하였지만, 일

96) 『갑오척사록』 8월 14일, 15일자 통문.

97)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5월(陰)의 영남정세보고에서 충청·전라 양도에 접경한 각 지방의 농민들이 동학도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상주 주변에서 報恩聚會에 다수가 참석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토비대략』에서 상주의 농민군 근거지로 지적한 곳은 牟東·化東·化西·化寧·攻城面이다. 또한 『尙州大觀』(1957년 尙州經濟自立研究會編)의 동학난 항목에서는 공성면 거주 손모를 중심으로한 殺班契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 살반계는 「惡質兩班이 불의로 평민 또는 천민의 생명재산을 약탈하고 위협할 때 완전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特別契員으로 하여금 該當兩班을 비상수단으로 처결토록」 했다는 것이다.

98) 농민군이 보낸 13번째 통문내용에서 알 수 있다.

99) 『各道謄報存案』 8월 6일자.

면 집강소에 경고통문을 보내고 일변 북부 3읍에 대해 척왜의 기치 아래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면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지배층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지배층도 일본세력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그들의 이해를 침범하는 농민군을 막는 것이 더 시급했으며 일본군은 제2의 적이었던 것이다.¹⁰⁰⁾ 8월 중순 농민군은 북부 3읍을 먼저 점거하기로 결정한 듯이 보인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서 농민군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고 항일전의 서두에서 승리하여 기세를 올리며 각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하려고 한 것이다.

二十日甲子 時賊勢日熾 以醴泉安東義城 功斥東徒之故 移通于忠清江原慶尙各接會于尙州梨亭蘇野等地 將圖伐邑 而閭巷閭小接 發徒卒 競相侵虐 百姓不能支保 怨乎之聲 載於道路¹⁰¹⁾

농민군의 취회에는 충청·강원도의 접조직에서도 합세해 왔다. 소야수접주 예천의 농민군은 태봉의 일본군병참부를 위협하기 위해 일부는 산양취회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그 주력은 예천읍내 공격의 중견거점인 화지와 금곡에 집결했다.¹⁰²⁾ 예천의 집강소는 사방에 밀파한 초탐(哨探)의 보고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농민군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읍민의 동요는 심각했다. 외촌에서도 피난하는 사람이 산야를 덮었다.

8월 21일 영남 북서부의 농민군 지도자 13명의 대접주 및 접주(관동대접·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가 회합한 다음 예천의 집강소에 동도 11인의 매살사건에 관련된 책임자 몇 명을 압송하지 않으면 읍내를 공격하여 보복하겠다는 엄중 경고통문을 보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집강소는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뒤에 보내진 다른 통문에서 소야수접주는 책임자를 2명으로 제한하는데, 이들은 집강 3명 가운데 9월 14일 신병으로 사임한 박인문(朴仁文)을 제외한 장문건(張文建)·황송해(黃松海)로 보인다. 부병의 실제 통솔자인 이들은 단양 장씨와 창

100) 예천의 집강소가 척왜의 기치 아래 합류하기를 촉구하는 동학농민군에게 이를 거부한 명분은 통문에 있는 “斥倭一款 事係朝家 不敢私自擅便稱之 以汝何其無禮細究端末 曲在於誰” 즉斥倭항목은 조정에서 하는 일이라 감히 私家에서 이를 청할 수 없고 동학농민군도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된 후인 1896년 봄에는 (병신년) 金谷 儒學 朴周庠을 대장으로 前執綱 張文建을 副將으로 삼아 전의 집강소 조직을 토대로 의병이 조직되어 京兵과 高坪廣野에서 전투도 벌인 것 처럼 (金秉河, 『自行錄』 『不自棄文』) 예천의 지배층도 강한 반일감정이 있었으나, 이 때 (1894년)의 제1의 적은 농민군이었던 것이다.

101) 『갑오척사록』 8월 20일자.

102) 『渚上日月』 8월 20일자. 東人收刀 弓馬錢物 逾文嶺向金谷蘇野 『갑오척사록』 8월 21일자.

是時各處東徒 設大會于尙州山陽 及本郡金谷花枝 各萬餘人 聲言將屠邑, 이 때 醴泉 吏屬과 兩班에게 宿憾을 보복하려는 義城 官奴들도 이에 합세했다. 『저상일』 8월 24일자. 義城官奴輩 設東學接于山雲空閣 其意殆欲報復宿憾 于本邑吏屬及兩班

원 황씨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농민군이 “도적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한다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이므로 후회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회답을 보내는 한편 안동도총소와 경상도 감영에 급박한 사정을 호소했다.

고립된 예천읍을 지원할 수 있는 군읍은 읍세가 큰 안동뿐이었다. 안동은 도총소와 진영이 함께 방수를 맡고 있었으나 이때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급박했다. 호서층의 서상철의 이름으로 8월 25일을 기하여 안동부 명륜당에 도취하지는 포고문이 각읍에 보내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⁰³⁾ 이 포고문은 척왜의 기치 아래 유생의 봉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안동을 항일전의 근거지로 만들려는 유림의 시도였다. 안동의 관아와 지배층은 당시 경북궁 「쿠데타」 이후 가중되어온 일본세력의 침투와 친일개화파의 갑오개혁 추진에 대한 재지 보수유림의 저항과 반일 및 폐정개혁을 기도하는 농민군의 공세를 동시에 막아내야만 했다.

반일유림과 농민군이 협력하여 안동 공격을 시도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부 3읍에 대한 농민군의 공격은 8월 22, 23일경 의성과 안동에서 시작되었으며 민보군의 완강한 반격을 받게 된다. 안동에서는 민보군이 선제공격으로 나왔다.

而入邑作梗之亂類 幾名已爲捉勘 厥類又侵略於一直面 自鎮營發遣校卒則 已皆逃去 一未捉得 前後事實 只此而已¹⁰⁴⁾

선발대로 읍내에 들어간 농민군은 체포되었고 진영의 교졸이 농민군 집결지였던 일직면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안동 농민군은 황황히 퇴거하게 되었다. 8월 25일에 읍내를 공격하지는 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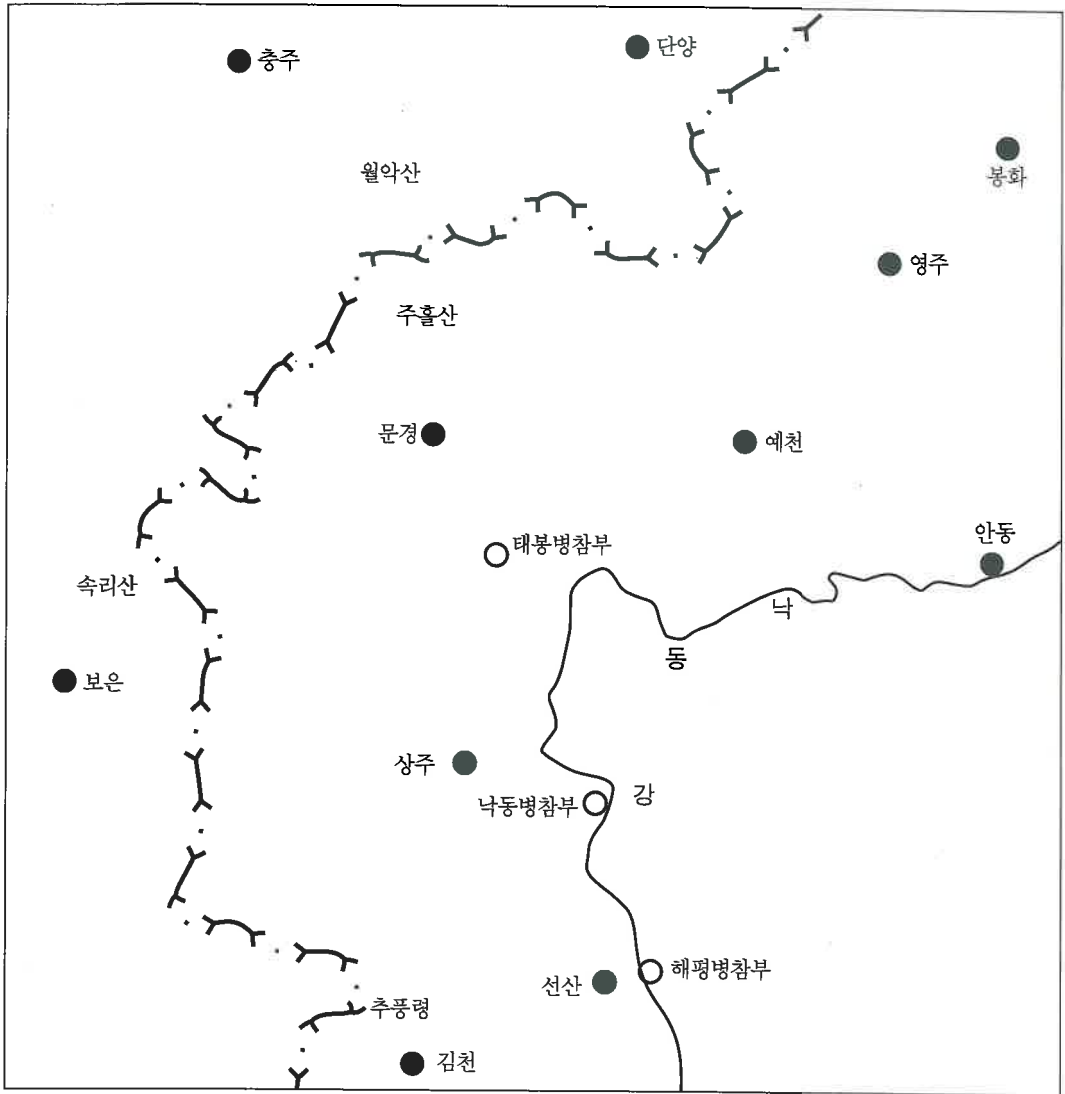
한편, 농민군의 산양취회와 서상철 격문의 척왜문구는 이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을 크게 자극시켰다. 산양과 인접한 태봉병참부는 독자적으로 농민군의 형세를 파악하려고 죽내(竹內)대위와 병정 2명으로 이루어진 일본군 정탐 1개조를 파견했다. 이들은 농민군 집결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용궁 근처에서 발각, 포위되어 죽내대위는 피살되었고, 병정 2명은 손가락이 잘리며 총을 빼앗긴 채 탈총(奪銃)당하면서 근근이 도생해서 태봉병참부로 귀대했다.¹⁰⁵⁾ 이 사건은 농민전쟁기 농민군과 일본군 간 최초로 벌어진 충돌로써 일본신문에도 보도되었으며,¹⁰⁶⁾ 일본영사는 즉시 병영을 파견하여 「비도(匪徒)를 초무(剿

10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이 격문은 경북궁 「쿠데타」 후 「劫主上 逼百官 遂兵衛 奪武庫」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三千里 冠帶之鄉」 영남유생의 봉기를 촉구한 것인데, 말미에 보는 즉시 한 부를 등사해 장내에 輪示하고 원본은 각읍에 같은 방법으로 流傳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손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4) 『갑오척사록』 8월 25일자 安東都摠所 通文.

1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撫)」하도록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강요하였다.



[도면 3] 예천공방전 당시 일본군 병참기지

그러나 경상감영은 「영병 3백을 급히 보내 농민군을 진압하라」는 중앙정부의 전칙(電飭)¹⁰⁶⁾이 있었음에도 즉각 이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농민군의 동정은 호남·호서에 접경한 각군에서 심상치 않았으

106) 『時事新聞』1894년 9월 26일자 (음 8월 27일자)

107)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甲午 8월 27일자. 金允植은 일본공사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勅旨電飭嶺營 立派該營親軍三百 火速前往 剿辦救護.”¹⁾

『各道謄報存案』은 이 시기 영남 각지에서 농민군봉기에 대한 보고가 빗발친 모양을 보여주는데 조정에서는 일본공사의 강요에 따라 일본군과 충돌이 일어난 龍宮縣 부근에만 파병을 명하고 있다.

며 수령들의 보고가 잇따라 그 정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구에도 농민군 50여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온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부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영병파견이 늦는 것에 심한 불만을 나타냈다.¹⁰⁸⁾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는 8월 28일 병방 신태휴(申泰休)가 지휘하는 남영병 200명을 파견했는데, 도중에 진(鎭)의 교졸(校卒)까지 합류시켜 초관(哨官)·초장(哨長)·병정 등 254명이 칠곡·인동·선산·상주를 거쳐 용궁·예천으로 행군하도록 했다.¹⁰⁹⁾

일본군은 서상철의 격문과 산양취회를 계기로 이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에 5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동시에 태봉병참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낙동병참부와 충주 주둔 일본군 공병중대의 일부 병력을 보내 구원하도록 했다.

안동·의성에서 정면공격의 위협성을 알게 된 예천의 농민군은 장기전을 계획하게 되었다. 패산한 안동·의성의 농민군도 화지점에 합류하여 읍내출입을 완전 봉쇄하면 식량과 땀값이 공급되지 않아 불과 1개월 이내 예천읍을 점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지농민군은 각접과 연락하여 북으로는 금곡·은풍·송정, 동으로는 도평·감천·석관, 남으로는 직곡, 서로는 화지에 둔거하여 읍내를 포위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읍내의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교통이 두절된 지 근 한 달이 지나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는데 농민군이 사방을 막고 식량의 유입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읍내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군수까지도 여러 날을 죽으로 끼니를 넘기는 형편이었다. 주야 방수에 지친 부병도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집강소의 여러 임원들은 시일이 지나 기근이 심해지면 중심이 이산되고 회복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지금 일전을 치루어 생사를 결판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농민군은 비록 수가 많으나 부병이 강력한 조직력으로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다.

8월 23일 부병 300여명은 읍내를 나와 화지 1리 거리까지 진격하여 대치했다. 화지 남산¹¹⁰⁾과 마을에 있던 「수천」 농민군이 각기 병장기를 들고 접응해 나오자 짐짓 패하는 체 읍내로 회군했다. 부병에게 유리한 읍내로 농민군을 이끌어들이 일전을 결하려는 작전이었다. 집강소의 이 시도는 성공했다. 보고를 들은 소야수점주 최맹순은 대노하여 예하 각접에 읍내 공격령을 내렸다. 동로의 농민군도 동원되어

108)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又如慶尙監司 雖奉派兵彈壓匪徒之命 仍然逡巡不發 僅止派出校卒云云.”

109) 임오군단 후 親軍 4營(前後左右營)이 성립되면서 경상도에서도 감영의 兵額을 정리하고 경군의 예에 따라 훈련함으로써 1883년 5월 13일 親軍南營의 칭호를 받았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325) 농민군 진압을 위해 남영병이 서북 각군에 파견된 것은 모두 9차례로서 그 행군지역과 경비지출 내역은 『嶠南隨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10) 농민군은 향리들이 진을 치며 納租를 독촉하던 남산에 성채를 쌓고 주둔했는데, 尹熙木씨가 예전에 노인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東學꾼들은 양식을 내라는 외에 다른 행패는 하지 않았다」.

화지에 증파되었다. 금곡에도 각접의 농민군이 증원되었다.

결전에 대비하여 집강소는 읍근동리의 농민들을 총동원시켰다. 부내인 중 여유있는 사람에게는 '전곡을 헌납시켜 부병을 든든히 먹였다. 그리고 읍민을 결속시키기 위해 읍의 주산 장군암과 의충사(毅忠寺)에 「존령(尊靈)이 강림하여 집강소를 도와 추류(醜類)를 섬멸시켜 달라」는 제사를 지냈다.¹¹¹⁾ 안동도총소에는 충청 각접의 농민군 「기만수(幾萬數)」가 예천에서 무기를 탈취한 후 안동을 공격하려는 기세이니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통문을 보냈다. 26일 용궁 공형이 급보를 보내 어제 농민군이 관아의 무기를 탈취해 갔다고 전해왔다. 농민군의 공격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된 예천군수 조원하는 밤을 새워 안동진영과 도총소에 또다시 구원을 청하는 급보를 보냈다. 27일에는 농민군이 온다는 거짓말이 돌아 4·5번씩 읍민이 놀랐다. 읍민 가운데 몰래 재산을 외촌에 옮겨놓고 남부노소 서로 의지하며 읍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¹¹²⁾ 그러자 집강은 유사와 함께 이들을 위무하는 한편 동심 방어하도록 단속시켰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화지농민군의 예상 행군로인 현산(峴山) 골짜기에 총을 가진 부병 100여명을 잠복시켰다.

결전의 날이 된 28일 아침 집강소는 읍민을 위무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재차 장군암과 의충사에 제사를 지냈고, 부병을 고지에 올려보내 농민군이 집결해 있는 서·북쪽을 향해 방포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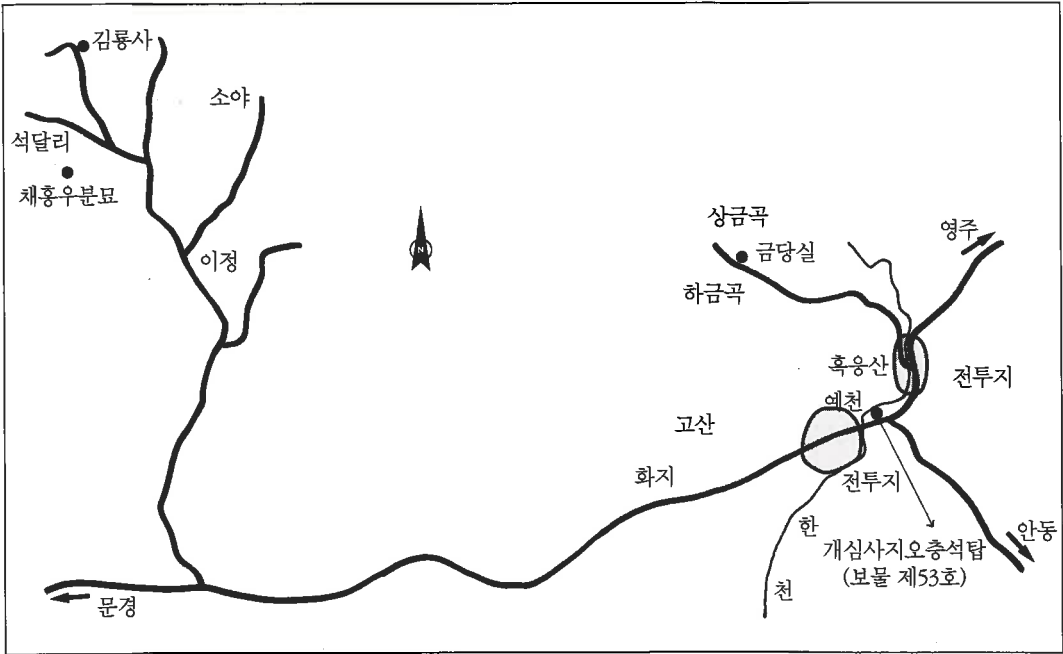
이 날까지도 화지 도회의 농민군은 “왜적을 막는 것이 본의이니 작두(作頭) 살인자 2명만 압송하면 읍촌이 무사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통문을 보내왔다. 퇴치접주 박현성은 이 날 직접 집강소를 찾아와서 또다시 합류를 촉구했으나 퇴치접주는 수감되고 이 제의는 거절되었다.

낮 12시를 조금 지나 화지농민군 수천이 읍에서 10여리 지점까지 진군해 왔다. 유정 숲에 포진한 화지농민군은 한천 긴 제방과 현산에 배치된 부병과 대치하였다. 화지농민군은 금곡농민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금곡농민군은 시각을 정해 서쪽과 북쪽에서 협공¹¹³⁾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뒤에 알려진 바로는 부병이 고지에서 방포한 소리를 기습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전열이 일시 흩어졌다고 한다. 예정된 시각이 지나자 화지농민군은 독자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포성이 대발하고

111) 예천읍 뒤산 墨鷹山의 중턱에 있는 넓이 10여미터, 높이 4~6미터의 넓은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부르는데, 읍민들은 이 바위가 영겁이 있다고 하며 예천읍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다. 루트가 심하면 장군바위에 제사를 드리고 장시도 漢川 모래사장에 서게 한다. 『내고장 전통가꾸기』(예천군 1981)

112) 이 때 예천읍민의 피난지는 이미 농민군이 진압된 안동방향이었는데 普門面 烏峙의 尹鍾榮氏(51세)는 피난로를 예천읍에서 天地峰과 通明驛쪽을 거쳐 乃城川을 건너는 것이었다고 고증한다. 윤종영씨는 「동학난 마냥 왜분주노(하나)」는 말이 있다면서 당시 칩하면(무슨 기척이 있으면) 피난 나갔다는 이야기를 노인들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113) 예천읍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북으로는 墨鷹山과 德鳳山, 남으로는 漢川이 흐르는 가운데에 위치하여 읍내로 들어가려면 남서·북동으로 난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공방전의 경우 수성은 용이한데 공격은 어려운 지형이다.



[도면 4] 예천공방전 전투지와 관련지역

연환이 섬광을 그리며 난무하는 가운데 서정자 제방과 현산에서 수비하는 수성군과 유정에서 서정자 들판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공격군 사이에 각기 다소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전투는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집강소에서는 접전이 있기 전에 사람을 몰래 보내 청북동 주민을 시켜 한천 남쪽 동산에 횃불을 준비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안동에서 구원병이 온 것처럼 고함을 지르도록 했다.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눈 건너편으로 잘 보이는 동산 위에 갑자기 화광이 오르면서 3천 구원병이 도착했다는 큰 소리가 났다. 그러자 농민군은 급격히 사기가 떨어지며 패산하기 시작했다. 팽팽하던 균형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농민군은 일거에 궤멸되었고 동남쪽 들판으로 쫓기다가 부병의 추격에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

부병은 유정숲 속에 남겨진 농민군의 의관·총창·양곡·마필을 거두어 관정(官庭)으로 돌아갔다. 죽음을 무릅쓴 싸움에서 승리한 부병들은 서로 일싸안고 군무(群舞)를 추었다. 그 때 또다시 북쪽 부모산 후방군(候望軍)이 방포하였다. 금곡농민군이 습격하는 것을 알려온 것이다.

기세가 오른 부병은 양천가까지 일제히 달려나가 봉화불을 끄고 논 사이 풀숲에 잠복하여 농민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금곡농민군은 모래밭에서 일자로 열진해서 북을 치며 피리를 불고 창으로 응답하면서 개울을 건너려고 했다. 이 때 양편에서 부병이 일시에 연환을 비가 오듯 쏘아댔다. 어둠 속에서 북병을 만난 금곡농민군은 대항할 겨를도 없이 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우계 광천의 전야와 골짜기를 향

하여 패주했다. 부병은 구산현까지 추격하여 수십 인을 죽이고 조총·창도·금고·나팔·말 다수를 노획해서 읍내로 귀환했다. 이 날 밤 읍내의 부녀들도 모여 부병이 이기도록 뒤편에서 고함을 질러댔다. 도망하던 농민군이 읍내로 숨어들자 부녀들은 돌을 던지거나 불로 공격하였다. 읍내와 외촌 간의 대립 그리고 오랜 봉쇄로 인한 적개심 등이 읍민을 결속시킨 것이다.

부병이 읍내에 재집결하여 대오를 정렬하자 새벽빛이 밝아왔다.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예천 읍 서·북 두 방면에서 벌어진 공방전은 마침내 관군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싸운 집강소의 승리로 귀결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과 읍내의 지배층 간에 전개된 이 공방전은 호남농민군 주력의 활동을 제외하면 농민전쟁기 단일전투로서는 최대의 것으로 보인다. 부병은 점고시 파악된 1천5백여명을 비롯하여 부녀자까지 모두 동원되었고, 조정에 보고된 농민군의 수는 4~5천명이었다. 모두 6~7천명이 일대회를 벌인 것이었다.

3) 예천 집강소의 조직과 약조

(1) 조직

집강소의 운영에는 향청과 관아 시수임(時首任)¹¹⁴⁾도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집강 이하 좌목의 수는 77명이다. 그 명칭과 신분은 다음과 같다.

| | |
|---------------|---------------|
| 執 綱 3 (貢生) | 整齊有司 8 (貢生 1) |
| 摠 督 2 (前通德郎) | (閑良 6) |
| 糧餉都監 4 (幼學 3) | 整齊有司 8 (出身 1) |
| (前同樞 1) | 別有司 4 (閑良) |
| 糧餉有司 2 (貢生) | 侯 望 4 (閑良) |
| 參 謀 2 (貢生) | 哨 探 7 (閑良) |
| 別 將 1 (幼學) | 砲 將 4 (閑良) |
| 文簿有司 2 (貢生) | 執 事 3 (閑良) |
| 日記有司 2 (貢生) | 訓 導 2 (閑良) |
| 書 寫 2 (貢生) | 軍器都監 1 (貢生) |
| 出令有司 6 (貢生) | 軍器監官 2 (閑良) |

114) 時首任은 다음과 같다.

座首 幼學 朴義鎭(咸陽人), 別監 幼學 李甫雨(慶州人), 別監 幼學 權聖海(安東人), 公兄 戶長 張載政(丹陽人), 吏房 鄭戴一(東萊人), 首校 前通德郎 黃昇和(昌原人), 閑良 金昌仁

으로 추정하여 향리층에 포함시켰다.¹¹⁸⁾ 시수입 수교 1명 (창원 황씨)도 전통덕량이란 품계를 붙이고 있다.

향리층이 아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읍내 및 읍근동리)의 농민들은 부병으로 편성되었다.¹¹⁹⁾ 부병은 일정 지역(部中=邑內)에서 동원한 병사라는 의미가 강하다. 힘세고 담력있는 평민들은 정세유사·별유사·후망·초탐·포장·집사·훈도 등으로 차출되었다.¹²⁰⁾ 초탐의 보고를 통해 집강소는 외촌의 농민군은 물론 상주의 정세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한량은 평민신분을 나타내는 명칭이었다. 8월 1일 처음 시행한 점고에서 파악된 부병의 수는 1천 5백여명이었다. 이 수는 군세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읍내와 읍근동리에 한정하면 총동원령을 내려야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다.¹²¹⁾

(2) 약조

집강소의 조직과 더불어 부병 편성과 운영에 관한 약조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無論父子兄弟 并許赴陣 以爲有急 同力不假 用從軍成例事
2. 不拘年限 除非老弱外 并許赴陣事
3. 立紀定律 施賞行罰 必須嚴明齊整 而一受 郡侯節制事
4. 立約之後 若有違背條規 投入東學者 毀家後 施以軍律事
5. 每月朔望點考 無故闕漏者 決棍十度事
6. 外面洞里 皆立執綱統首 自其面朔望點考後 修報本所事
7. 執綱都監 皆着答護 有司執事及部兵 并着黑衫果頭 以別白衣事
8. 坊曲街巷 置幕防守 分番巡警 四山高處 皆設望臺及炬火 晝夜伺察事

118) 官階와 職名에 前字를 붙인 것은 實職을 지낸 듯도 보이나 序列을 중시한 당시 이들이 예천에서 兩班으로 인정 받았다면 幼學이나 貢生보다 뒤에 기록될 리 없다고 추측된다.

119) 約條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이 집강소의 部兵이 된 것은 官衙와 鄉吏層 그리고 兩班 地主의 강제에 의한 것이다.

120) 閑良은 가) 幼學의 대칭어로서 武官이 될 수 있는 계급의 사람으로 아직 武科에 합격치 못한 자. 나) 鄉吏로서 14 - 5년을 근무한 뒤에 去官한 자(金在得編, 『古文獻用語解例』). 다) 돈 잘 쓰고 만관 놀기만 하는 사람(李熙昇編,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部兵에 편성된 평민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예천의 경우 時首任 首校 1명은 閑良이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되는 尹致文의 武科 及第 전의 신분도 閑良이었다. 閑良이란 명칭은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21) 1899년(光武 3년) 戶籍에 의하면 예천군 23개면의 戶口는 屬縣 多仁縣·山陽縣·豐山縣까지 포함하여 6,167 戶, 23,294名(男 12,816, 女 10,478) 이었다. 『醴泉郡邑誌』, 1899.

9. 若有急警則 吹角放砲 限三申內 一齊逢點 若有無故見闕者 嚴棍徵贖事

10. 痛禁搬移外處 以篤同心 低敵事

읍내에서 민보군 결성을 논의하던 7월 말은 농민군의 설포지역이 읍내를 포위하고 있는 형세였고, 그 위에 농민들은 급속히 합세해와 하루에 천명이나 들어올 정도였다. 따라서 집강소는 가능한 한 많은 민정을 동원하여 부병에 편성함으로써 무력을 최대한 키워야 했다. 지배층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읍내와 읍내에 가까운 동리에 불과했지만 이들 지역에선 읍내 방어라는 시급한 문제를 위하여 부자(父子) 사이도 가리지 않고(1), 노약자가 아닌 한(2) 부병에 종군시켰다.

집강소는 급모한 부병의 지휘체계와 기율을 세우고 상벌을 시행할 때 군수의 절제를 받게 하는 등(3) 관부의 위력을 빌려 합법적인 권력행사를 꾀하고 있다. 관부로서도 실추된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집강소의 부병이 농민군을 진압해주는 것 밖에 없었다. 외면동리에도 각기 집강과 통수를 세우고 읍내와 마찬가지로(5)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접고한 후 집강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6), 군수 조원하(趙爰夏)는 오가작통 시행령을 내려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시에 대한 호응은 나오지 않았다. 동부 전감역 이태환(李台煥)이 읍내와 가까운 3개 면(外東部面, 繩刀只面, 外北部面)이 협력하여 농민군을 공격하자고 한 제안뿐이었다. 그리고 부병의 유지경비는 부민의 찬조금 외에 관아에서 수세한 결전을 상납하지 않고 전용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다.¹²²⁾

일단 부병에 편제된 사람이 동화에 투입하면 집을 파괴한 후 군율을 시행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4). 이 조규에 따라 8월 9일 남부 청북정민 최용학(崔用鶴)·안국진(安國辰) 등 7명이 수감되고 그들의 집이 파괴되는데, 이 사건은 그 후 읍민들이 집강소 지시를 순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농민군과 정면 대립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4) 예천 집강소와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읍내 공방전에서 농민군이 패배하던 날 소야근거지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122) 『嶺南各郡軍需執用錢抄出冊』(建陽 元年 各觀察使 報來)에 보면 醴泉各年上納錢 중 1894년 執綱所에서 防守剿捕之費로 쓴 경비를 49,302兩 8錢 5分으로 安東府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甲午條 結錢 중 龍宮에서 사용한 2,312兩과 順興의 248兩 9錢 2分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이다. 尙州에서 募兵守城之資로 사용한 경비 8,779兩과도 비교된다. 『光武八年六月日醴泉郡甲午以後各年結戶上納未納區別成冊』은 甲午秋軍布의 上納錢 중 實上納分이 3,029兩, 그리고 甲午條乙未納結錢은 元帳結數 3,110結 18負 7束을 結當 20兩씩 거두어 驛卜戶結을 제외하고 實上納錢이 61,021兩 2分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剿捕經費 49,302兩 8錢 5分은 그 7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태봉명참부를 지원하기 위해 급파된 충주주둔 일본군공병대 일부 병력은 8월 29일 (양 9월 28일) 오전 9시경 석문리에서 농민군과 조우했다. 농민군은 지형상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여 방어했지만 일본군의 화력에 밀리어 소야 등지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¹²³⁾



[석문(石門) 전경]

석문리 싸움에서 패한 농민군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석문리는 예천농민군의 군수기지였던 것이다. 그 동안 농민군이 예천 일대에서 지배층과 마찰해가면서 대일항전에 대비하여 옥사 11간에 보관해둔 각종 무기와 전비는 일본군에 의해 모두 탈취되었다. 예천읍내 공격에 주력이 가담하여 불과 600여명만이 지키던 석문리 군수기지가 일본군에 점거되어 말 6필분의 총창기(銃槍旗) 등과 전곡 그리고 용궁관아까지 공격해서 구해 둔 총 200자루가 탈취되자 예천농민군은 무력해졌다. 수점주 최맹순도 소야를 떠나 강원도 평창 등지로 피신했다.

공방전이 집강소의 승리로 끝난 8월 29일 예천읍에는 지배층을 지원하는 외군이 가세해와 형세는 역전되었다. 오전 10시 안동구원병 3천 31명이 전오위장 김익장(金翼張) 인솔 하에 도착했으며, 오후에는 후군과 액외수종(額外隨從) 5백여명이 뒤이어 가세했다. 또 순영의 감결(甘結, 일본군 사관 1명 피살진)과 함께 일본군 53명도 읍내에 들어왔다. 선무사 이중하(李重夏)¹²⁴⁾도 도착하여 병기를 들고 조정에 항거하는 것은 신하의 분수에 어긋나니 농민군은 해산하라는 효유문을 선포했다. 부병과 안동병은 농민군이 예천읍에서 퇴각하여 일시 재집결한 금곡과 화지를 29일과 9월 1일 양일 간 공격하여 이들의 거점을 빼앗았다. 예천의 농민군은 소야 근거지와 화지·금곡 두 거점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12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閔慶병참부에서 釜山명참감에게 보낸 보고, 집전이 벌어진 石門리는 凹字形의 특이하게 형성된 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24) 李重夏는 1894년 7월 26일 선무사에 (『일성록』), 그리고 뒤에 慰撫使에 임명되어 영남 일대의 농민군 진압에 공을 세웠으나 그의 문집『二雅堂集』은 소략하여 당시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농민군의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안동병은 9월 2일 철수했다. 외부 창군(槍軍)도 돌려보냈다. 잔읍인 예천에 5천여 민보군이 집결해 있던 기간은 불과 3일이었지만 집강소는 식량을 대기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 간 저축된 곡식은 물론 부중 민가와 시정의 먹거리까지 모두 거두어 뒤를 댔으며, 심지어는 읍민에 영을 내려 비장해둔 맥종(麥種)까지 내도록 하여 군량으로 충당했다. 동학농민군의 특세에 전전궁궁하고 있던 정내 부민들이 집강소가 승리하여 그 위협을 제거해주자 다투어 전곡을 납부해 옴으로서 가까스로 군량을 댈 수 있었다.

9월 1일 안동방향으로 떠난 일본군은 장청(將廳)에서 쉬게 하였고 식량을 댔지만 집강소에서도 그리 탐탁히 여긴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 공격에 앞장서겠다는 제안에 대해 이미 적은 격파되었다고 집사들이 거절하고 있다. 동학농민군과 결전을 벌이는 절박한 시기에는 그 도움도 받으려 했을 터이지만 동학농민군이 궤멸된 후 예천의 지배층은 일본군과 협력할 의사는 없었다.

9월 4일에는 상주·용궁을 거쳐온 남영병 250명이 예천읍내에 와서 일박하고 있다. 다음날 다시 용궁으로 떠난 남영병은 소야부접주 고상무(高尙武) 3형제를 수색 체포하여 효수했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보복은 철저했다. 금곡·화지·퇴치의 농민군 가담자는 집중적인 보복을 받게 되었다. 접소 및 접주의 집은 물론 화지·금곡마을의 농민군 가담자들이 살던 집은 수십 채씩 불태워지고 가산은 몰수되었다.¹²⁵⁾ 최맹순 등 농민군 지도자는 지목되어 북부 각 마을의 통수들에게 그 동정을 보고하도록 했다. 9월 13일에는 금곡 일대의 마을을 수색하여 동학도들을 잡아 들여 「적괴(賊魁)」가 누구인지 심문한 다음 접사 정명언(鄭明彦)만 남기고 풀어주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하거나 앞장 선사람 또는 읍내를 공격한 죄로 붙잡힌 농민군은 모두 처형되었다.

동학농민군과 이들의 가족들은 소백산맥 산곡이나 문경 등지의 외촌으로 피신하여 몇 해 동안 고향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어야 보복을 면할 수 있었다.¹²⁶⁾ 그 동안 화지와 금곡의 마을은 비어있는 집이 많

125) 당시의 관아문서에는 몰수된 농민군가담자의 개인별 토지대장과 이를 맡아 관리한 향리의 명단이 있다. 그 중에는 금곡농민군의 거괴로서 蘇野接에서 糧餉都監을 맡았던 조刀也지는 각면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다. 花枝의 농민군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尹致文이다. 윤치문은 勇力이 절륜한 장사로서 서울에 올라가 1888년(光緒 14년 4월) 무과 병과에 급제(教旨 閔良尹致文武科兵科 第八百六十一人及第出身者)하여 1892년에는 사헌부 감찰(教旨 尹致文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을 역임하고 귀향한 후 동학에 투입하여 예천 읍내와 대립하고 있던 시기에 농민군의 앞장에 선다. 당시의 가산은 논 50마지기에 노비도 두세 명 있을 만큼 부농이었다. 윤치문의 父 尹龍勳은 1905년(광무 9년 4월 20일) 正三品에서 從二品 嘉善大夫로 오를 정도의 직첩을 받고 있었다. 윤치문은 8월 28일의 공방전(굴머리앞 싸움)에서 전사했다. 『坡平尹氏大同譜』의 花枝派譜에는 윤씨들이 갑오년 8월 28,9일 및 을미년 봄에 추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26) 尹致文의 가족은 山陽面 渭滿里로 피난가서 그의 대고모와 여동생이 출가한 후에 孤山에 돌아왔다. 『渚上月』 8월 29일에서는 金谷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邑軍三千 火放金谷儒契所 上下金谷燒滅 入道家九三·四戶灰滅” 咸陽 朴氏의 유계소는 이 때 灰燼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그 후 자리를 옮겨 다시 세운 것이다.

아 공허할 정도였다. 동학농민군 가담자의 토지는 관에서 몰수했다. 관아에서는 향리에게 몰수한 토지를 분급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지배층에 대한 농민군의 위협이 읍내를 포위한 상태에서 수개월 간 지속되었던 만큼 집강소의 보복도 오랫동안 가혹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선무사 이중하와 소모사 정의목은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중하가 안동에서 보낸 감결의

或承勝士氣 殺無罪之人 燒不關之家 魚鴻并罹 玉石俱焚則 是豈我朝廷撫綏之義乎 奮從者施以寬典 歸化者許其自新 但托其中 掠奪爲事者 是火賊也 一一捉納 施律之義¹²⁷⁾

와 같이 농민군의 강요에 의해 협종한 사람은 관대한 은전을 베풀고 귀화자까지 기회를 주되 약탈을 주로 한 사람만 일일이 체포해 화적죄로 처형하도록 지시했지만 「예인과행초록(醜人過行剿戮)」했다는 평을 들을 만큼 집강소는 선무사의 농민군 진압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호된 보복을 자행하였다. 영남 북서부 15읍을 관할했던 상주 소모영이 12월 3일 예천집강소에 내린 전령을 보면 “앞으로 어디에 부세(賦稅)할 것이냐”는 호통이 나올 정도였다. 읍내공방전이 벌어진지 두 달 후에도 소모영은 앞으로는 먼저 관청에 알린 뒤에 일을 처리하도록 엄명을 내리고 있다. 집강소가 설치된 것이 “실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뜻에서 나왔다”고 대소민인(大小民人)이 알도록 하라며 만약 다시 미혹에 집착해 고치지 않으면 참형에 처하겠다는 경고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관치가 회복되자 자치적인 농민통제도 강화되었다. 유명무실했던 오가작통도 회복되었다. 금곡동 양반들은 참화가 지나간 마을의 결속을 위해 동신(洞神) 위안제를 마련하고, 집강소의 위력을 빌려 동약과 동규를 정하려고 집사와 총수 1명씩을 청하고 있다.

최맹순은 피신해 있던 강원도 평창집에서 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농민군을 탄압한 적성리에서 방화 보복하다가 그의 아들 및 접사 장점극과 함께 체포되어 11월 22일 처형되었다.¹²⁸⁾ 1894년 3월 이후 소야를 중심으로 농민군을 규합하여 48집 7만여 농민군을 지휘하던 관동수접주 최맹순이 효수됨으로써 예천 일대의 조직적인 농민군 활동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27) 『甲午斥邪錄』, 9월 2일자.

128) 『甲午斥邪錄』, 11월 22일자.

崔孟淳年四十二 白等矣身本以江原道春川之人 學虛妄之術 潛身私習 爲二十二年是白如可 今年三月 分設接於本郡蘇野地 無論他道本道 誘募徒黨 爲七萬餘名 地狹類多 出接各處 爲四十八所是白乎彌 所謂徒黨 無非荒雜亂類 朝令營飭 違逆不奉 已合梟警 除良 掘人墳塚 奪人庄產 勒取龍宮軍器 欲屠醴泉邑人是白如可 竟爲敗逐 寄身於江原道平昌接 所率得近百接 卒去月十七日良中 突入本邑赤城里 放火人家 掠取民財 往來於忠州篤基嶺等地 至於捕捉 自願罪狀 烏敢望時刻容貸 函腸勸斷教事

예천의 집강소는 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되어 종래의 질서가 회복된 1895년 2월에 해체하게 된다.¹²⁹⁾ 읍내공방전 이래 그 때까지 집강소가 수행한 가장 큰 일은 부병 600명을 상주로 파병한 일이었다.¹³⁰⁾ 남접군과 대일항전에 합세한 후 공주전투에서 패한 북접농민군 수천이 무주에서 재집결하고 영남지역을 위협하자 상주소모영은 각 군현의 민보군을 동원하여 상주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예천군은 소모영에서 할당한 포군 600명을 파견했으나 무주의 농민군이 황간·영동을 거쳐 북상하다가 해산함으로써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착한 다음날 곧 회군해올 수 있었다.

예천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퇴한 사실은 영남선무사 이중하의 장계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었다. 조정에서는 예천의 吏民 중 집강소 설치를 주도하거나 민보군을 지휘한 유공자를 영남 감사에게 조사하여 포상을 건의하도록 지시했다.¹³¹⁾ 이에 따라 이방 정대일은 「수선출모(首先出謀) 주획방략(籌劃方略)」으로, 집강 장문건과 황송해는 「본신창술(奮身倡率) 초살괴당(剿殺魁黨)」으로 『갑오군공록』에 오르게 된다.¹³²⁾

4. 맺는 말

인천 채씨의 세거지인 산북면 석달리는 산북면 석봉리로 행정명칭이 바뀌었다. 봉상(鳳上), 봉하(鳳下)와 함께 합해져서 만든 이름이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석달리 또는 석달동으로 부르고 있다.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상주목(尙州牧) 소속에서 문경군(聞慶郡)으로 이관되었다. 한 면 전체가 함께 이관된 것이다. 그리고 점촌시(店村市)와 통합해서 문경시가 되었다. 지금은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이다.

석달리에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이들이 열망했던 것은 폐정개혁(弊政改革)과 일본세력의 축출이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바라던 사회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뒤늦게 이루어졌다. 동학농민군이 수행하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 사회에 확산되는 형태였다. 신분제가 폐지되는 사회제도의 변화는 곧 웃사람과 아랫 사람의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던 향촌사회의 관행도 변화시켜 나갔다. 이제는 태어날 때의 신분에 따라 양반과 상천민으로 평생의 삶이 규정되는 사회에서 벗어났다.

일본침략 세력의 축출은 실패하였다. 석문과 소야에서 일본군에게 근거지가 유린당하고 무기와 군

129) 해산에 관해서는 鄭相益씨 소장본인 『갑오척사록』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다.

130) 『갑오척사록』 11월 12일 - 20일자.

『소모사실』 乾

131) 『別啓』는 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고종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 9월 15일자에 전제되었고, 『갑오척사록』 및 1895년에 만들어진 『醴泉邑誌』에도 潘在元 등에 의해 사례로 기록되었다.

132) 『갑오군공록』

수몰자가 약탈된 까닭에 경상도 북서부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크게 약화되었다. 결국 가을 봉기 이후 이 지역에서 완강하게 일본군과 싸웠어야 할 동학농민군은 그 한 달 여 전에 기세가 꺾였던 것이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대일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가장 강력한 반일 역량이 약화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위에 있는 작은 산줄기에 가족들이 만든 채홍우의 가묘는 상징성이 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험준한 맥을 수호하며 가족과 주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는 험난한 시기에 이 작은 분묘(墳墓)는 역사의 왜곡과 민족의 갈등을 비롯한 근현대사의 흐름도 지켜보았다.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난 뒤까지 동학농민군은 복권이 되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동학비적(東學匪賊)’으로 간주되었다. 1894년 갑오년에서 110년이 지난 2004년 2월에 와서야 비로소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분투노력과 함께 채홍우의 의로운 생각과 행동은 특별법 형식을 통하여 나라에 의해 굳게 그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제 후손들은 외따로 떨어진 채홍우의 묘를 가족 곁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주인을 모시지 않은 무덤이라 고인(故人)의 의지를 담은 영토(靈土)를 배위(配位)의 무덤과 합장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후손들은 가묘에 고인의 밥사발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어왔다. 그리하여 이장하면서 밥사발이 나오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영구히 모시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분묘를 발굴한 결과 밥사발은 출토되지 않았고 영현(靈顯)이 깃들여 있을 그윽한 나무 인형의 잔영이 세상에 나왔다. 이 나무인형에 들어있는 유혼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전시관에 길이 안치되어 후대의 교훈이 될 것이다.

부 록

I. 제문 / 이이화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토양의 유기화학 분석
예비고찰 / 김주용 · 남옥현

III. 동학농민군 참여자 채홍우 분묘 출토 목재소편의 수종분석
/ 박원규 · 이기성

I. 제 문

채홍우님 영전에 올립니다.

이 이 화(동학농민혁명단체연합회 고문)

채홍우님은 동학농민군이었습니다. 저 양반 상놈과 적자 서자와 상전 노비를 갈라 인간을 차별하는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때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이리저리 뜯겨 보리고개에는 부황에 걸려 죽어갔던 농민들을 보다 못하여 스스로 그 참상에서 벗어나려고 일어섰습니다. 일제의 포악한 손길이 뻗쳐와 민족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일제의 군대를 몰아내려 분연히 봉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정에 찌든 지배세력과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 침략자들은, 현실 개혁에 앞장서고 구국의 대열에서 몸을 바친 동학농민군을 비도나 역적으로 몰아, 역사를 왜곡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꼭 110년만인 올해 봄,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채홍우님 영령이시여! 구천을 떠돌며 품었던 원통함을 이제 조금이라도 푸시고 미소를 지으며 이 자리를 굽어보아 주소서.

채홍우님은 인천 채씨의 가문에서 정사년에 태어나시어 밤낮으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 가족의 호구를 잇고 접빈객과 봉제사를 알뜰히 하는 모범 농민이었습니다. 하루 천사백 평의 밭을 같이하였던 장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어지러울 때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 동학에 들어 인간평등을 배웠습니다.

그 뒤 갑오년 장년의 나이로 동네의 동지인 채성우님과 황기용님과 함께 분연히 봉기의 대열에 참여하여 석달동 마을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채성우님이 비장한 최후를 전해 주어 자손들은 8월 28일을 기일로 삼아 기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갑오년 8월 28일은 예천 읍내에서 보수집강소의 군사들과 농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날입니다. 경상북도 내륙의 예천 문경 상주 등지의 동학농민군 수 천 명은 8월 하순에 들어 예천 관아의 무기를 접수해서 태봉 낙동 등지의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천 수성군과 농민군이 예천 읍내의 한천에서 큰 결전을 벌여 수많은 농민군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서정자 들판과 한천의 모래밭에 뒹굴던 농민군의 시신은 구덩이 속에 마구잡이로 묻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채홍우님이 한천전투에서 희생을 당하였고 그 시신은 한천 모래밭 부근 어딘가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일본군이 예천 석문리를 공격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또 많은 농민군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아아, 채홍우님 영현이시여! 자손들은 시신을 찾지 못해 밥사발에 고인의 이름을 새기고 가묘를 만들어, 밥사발을 시신으로 여기고 상선새터 유등의 아늑한 자리에 묻었습니다. 아마도 누울 곳이 없어 떠돌던 영혼은 밥사발에 들어 자손들을 굶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기제와 시제를 받으면서도 원통함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만 분의 일이라도 그 공적을 갚으려 국가유공자로 추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후손들은 뒤늦게나마 새로 격식을 차려, 채홍우님의 영현을 봉안하는 행사를 서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열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 제향을 올립니다.

떠돌던 영혼이시여! 편안한 마음으로 새 자리에서 잠드소서. 이제 제수를 흠향하신 뒤 원한을 거두시고 우리들에게 미소를 보내주소서. 여기 후손들과 후인들은 자리를 펴고 공손하게 절을 올리면서 선열의 공덕을 기리고 마음을 모아 잔을 올리오니 받아 드시고 새 자리에서 길이 영면하소서.

갑신년 봄 3월 21일에 이이화 여러 후인들 대신하여 제문을 올립니다.

I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토양의 유기지화학 분석 예비고찰

김주용 · 남옥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서언

고고학적 토층은 주로 문화층 혹은 유물 출토층이라고 볼 때, 이 토층을 구성하는 토양은 대개 현장에서 절토된 토양이든지 혹은 가까운 주변 토양일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특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운반된 흙으로 완전 혹은 부분 성토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동학농민군 참여자 채홍우님의 묘지 봉분을 채운 토양에 대하여 유기지화학적 분석 실시를 통하여 분묘 조성에 사용했던 성토 토양이 현지나 주변 토양인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운반해 온 이질적 토양인지 규명해 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토양 분석을 위하여 총 탄소함량 (total carbon concentration, TC, wt %), 총 유기탄소함량 (total organic carbon concentration, TOC, wt %), 총 질소함량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TN, wt %), 총 황 함량 (total sulfur concentration, TS, wt %)을 측정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2. 토양 유기지화학 연구 개요

토양 단면의 연속시료를 이용하여 유기물의 최대 구성성분인 탄소함량의 수직분포를 측정해 보면, 상부 층보다 하부 층에서 탄소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탄소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층은 과거 지표상에 노출되었던 표토, 즉 고토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고고학에서 말하는 문화층 (고고유물 출토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층은 환경의 변천, 매몰현상, 고지형, 고지리 등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총 유기탄소함량과 총 질소함량의 비 (TOC/TN ratio)나 질소함량의 수직분포도 고토양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탄소와 질소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출되어 있는 토양에는 식물이 자라게 마련이며, 이 식물이 죽어서 미생물에 분해되면 표층 (A층)에 유기물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미성숙 토양 단계를 거쳐 토양이 성숙하게 되면 표층 하부에 B층이 형성되고, 그 하부에 C층이 차례

로 형성된다.

토양층의 형성은 환경인자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B층은 물의 움직임과 더불어 상하층의 성분이 이동하여 집적하는 특징을 보이며 환경인자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토양층의 유기성분의 기원은 동식물의 사체, 식물의 뿌리, 미생물 등이다. 따라서 지표면이 안정되어 식생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표층에 유기물이 집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물은 주로 표층에 공급되므로, 유기물함량은 하부로 가면서 감소하게 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유기물함량이 많은 층은 과거에 표층(A층)이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토양층의 유기물은 삼림지역 보다는 초원지역의 토양에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단, 유기물량은 공급량과 분해량과의 차이이므로, 과습하거나 한랭한 지역의 토양에서는 분해가 억제되어 유기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토양층의 유기물량은 고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물함량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유기물의 최대 구성성분인 탄소(C)를 측정하게 된다. 토양층의 유기탄소함량은 ① 일차생산성, ② 유기물 생성분의 분해, ③ 퇴적물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기탄소함량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Muller and Suess, 1979; Stein, 1991, Kawahata *et al.*, 1994). 질소(N)도 유기물의 주요한 구성성분이다. 질소함량의 변화도 탄소함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탄소에 비하면 질소가 보다 더 분해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TOC/TN ratio는 신선한 유기물, 특히 온대지방 육상 고등식물을 많이 포함하는 토양층에서는 25-44 범위(평균 35)로 상당히 높다 (White, 1997, p.37; Meyers, 1994). 그러나 단백질이 더 많이 포함하는 해양성 플랑크톤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아 5에서 8 정도 범위를 보인다(Goni and Hedges, 1995). 이러한 특성 때문에 TOC/TN ratio를 유기물의 기원지 추적, 즉 유기물이 해양성인지 육성인지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다(Tolun *et al.*, 2002).

유기탄소 함량이 1% 보다 적거나 점토광물을 많이 포함하는 퇴적물에서는 TOC/TN ratio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퇴적물에서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일라이트에 고정된다든지, 몬모릴로나이트에 흡착되어 있는 질소화합물이 전체 질소함량을 높여 결과적으로 TOC/TN ratio를 낮추기 때문이다 (Muller, 1977; Mackin and Aller, 1984). 또한 토양의 유황(S)의 함량은 해양 토양, 퇴적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토양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상부,중부,하부 3개 토양시료에 대하여 총 탄소함량(TC, wt %), 총 유기탄소함량 (TOC, wt %), 총 질소함량 (TN, wt %), 총 황함량 (TS, wt %)을 측정하고, TOC/TN ratio를 계산하

였다. 전체 토양시료의 TC(wt %)은 0.97-1.14, TOC(wt %)는 0.93-1.12, TN(wt %) 0.07-0.08, 그리고 TS(wt %)는 0으로 분석되었으며, TOC/TN ratio는 14.00으로 나타났다.

상기 시료를 상부, 중부, 하부로 구분해 보면, 상부시료에서 TC, TOC, TN 값들이 약간 증가하지만, 중간 시료와 하부 시료에 비하여 그 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TN 값은 상부시료가 중부와 하부시료에 비해 약간 증가한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값의 차이는 기기측정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다. 이렇게 TOC와 TN 모두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므로 탄소와 질소의 분별 분해작용을 겪은 고토양층(paleosol)로 보기는 어렵다 (Ujii *et al.*, 2001).

한편, TOC/TN ratio에서도 모두 14.00으로 나타나 시료간에 어떤 차이도 감지할 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보는 육상 토양의 범위값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를 미국 전역의 토양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해석해 보면, 미국의 토양에서는 TOC/TN ratio가 토양 부식물(humus)인 경우 10-20, 일반 토양층은 7-26, 옛 초지성(비료사용 유무 무관) 토양은 11-12, 옛 경작지(퇴비사용 여부 무관) 토양은 8-10의 범위를 각각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토양시료는 과거 토양화 과정을 거친 토양B층(고토양층)이라기보다 현재 표토 부근의 일반 토양으로 해석된다. 본 분석시료에서 토양내 유황(S)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이나 호소환경에서 생성된 토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동학혁명군 묘지 토양시료의 유기화학 분석값

| | TC(wt%) | TOC(wt%) | TN(wt%) | TS(wt%) | TOC/TN(wt%) |
|-----|---------|----------|---------|---------|-------------|
| 상 부 | 1.14 | 1.12 | 0.08 | 0.00 | 14.00 |
| 중 부 | 0.97 | 0.93 | 0.07 | 0.00 | 14.00 |
| 하 부 | 1.01 | 0.94 | 0.07 | 0.00 | 14.00 |

4. 결론

본 연구 지역의 토양은 실제로 토양색이 회색이나 갈회색인 토양 부식토(토양 A층)일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토양색이 갈색 혹은 황갈색을 보이므로 일반 토양으로 분류되고 있다. TOC/TN ratio가 14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구릉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토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상부, 중부, 하부 토양 간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거의 동일한 토양으로 간주된다. 즉, 본 토양이 동학농민 혁명군 참여자의 분묘 성토용(backfill)으로 사용했다면, 주변 산림지나 구릉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 토양(산림지나 구릉지 갈색토 포함)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 Goni, M.A. and Hedges, J.I. (1995) Sources and reactivities of marine-derived organic matter in coastal sediments as determined by alkaline CuO oxidation. *Geochim. Cosmochim. Acta* 59:2956-2981.
- Kawahata, H., Ujiie, H., Eguchi, O.N., Nishimura, A., Tanaka, Y., Ikehara, K., Yamazaki, T., Ioka, N., Kayane, H. (1994) Fluctuations of the accumulation of organic and carbonate carbon in the West Caroline Basin over 300 kr. *Quaternary Research*, 33:19-29.
- Mackin, J.E. and Aller, R.C. (1984) Ammonium adsorption in marine sediments. *Limnol. Oceanogr.* 29:250-257.
- Meyers, P.A. (1994) Preservation of elemental and isotopic source identification of sedimentary organic matter. *Chem. Geol.* 144:289-302.
- Muller, P.J. (1977) C/N ratio in Pacific deep sea sediments: effect of inorganic ammonium and organic nitrogen compounds sorbed by clays. *Geochim. Cosmochim. Acta* 41:765-776.
- Muller, P.J. and Suess, E. (1979) Productivity, sedimentation rate, and sedimentary organic matter in the oceans. *Deep-Sea Res.* 26A:1347-1362.
- Stein, R. (1991) Accumulation of organic carbon in marine sediments. Springer-Verlag, Berlin. 217 p.
- Tolun, L., Cagatay, M.N. and Carrigan, W.J. (2002) Organic geochemistry and origin of Late Glacial-Holocene sapropelic layers and associated sediments in Marmara Sea. *Marine Geology*, 190:47-60.
- Ujiie, H., Hatakeyama, Y., Gu, X.X., Yamamoto, S., Ishiwatari, R. and Maeda, L. (2001) Upward decrease of organic C/N ratios in the Okinawa Trough cores: proxy for tracing the post-glacial retreat of the continental shore line.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165:129-140.
- White, R.E. (1997) Principle and Practice of Soil Science(3rd ed.). Blackwell Science, p.36-37, p.44-46.

Ⅲ.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채홍우 분묘 출토 목재소편의 수종 분석

박원규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이기성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륜연구센터 연구원)

1. 조사대상 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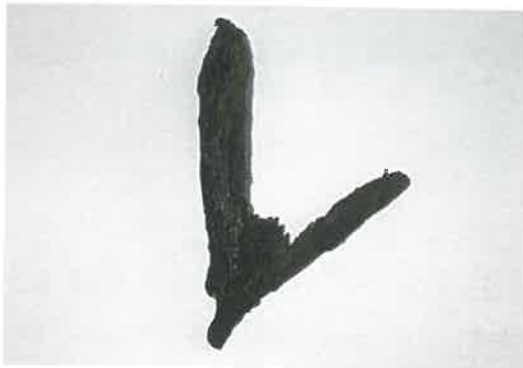


[사진 1] 동학농민혁명유공자 채홍우 가묘



[사진 2] 묘광 세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공자 채홍우님의 가묘에서 출토된 목재소편 1점을 대상으로 수종을 조사하였다.



[사진 3] 나뭇가지 윗면



[사진 4] 나뭇가지 아랫면



[사진 5] 나뭇가지 우측면



[사진 6] 나뭇가지 좌측면

사진 2~사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무로 만든 가공품처럼 보이나 송진이 많은 가지부분만 썩지 않고 남아 있다. 시료의 일부분을 가지고 수종식별을 하였다. 다음은 식별을 한 시료의 방향별 사진이다.

2. 분석방법

시료는 수분증발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한지로 싸 후 비닐에 봉하여 냉장보관 하였다. 시료의 원형보존을 위해 시료의 안쪽 면을 3×3×3mm 크기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식별하였다.

우선 떼어낸 시료에 대해 면도날을 이용하여 30~50 μm 두께 정도로 삼단 면의 박편을 제작하였다. 박편을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글리세린을 떨어뜨린 다음 커버글라스로 기포가 생기지 않게 덮고 광학현미경(Nikon E200)으로 삼단면의 조직과 세포를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하였다.

수종식별은 ‘목재조직과 식별’ (박상진 외, 1987), ‘한국산 목재의 구조’ (이필우, 1994), ‘주요유용수종의 조직특성’ (박상진, 1987), ‘국산 활엽수재의 목재조직’ (박상진, 1990)을 참조하고 충북대 임산공학과 소장 목재재감 프레파라트로 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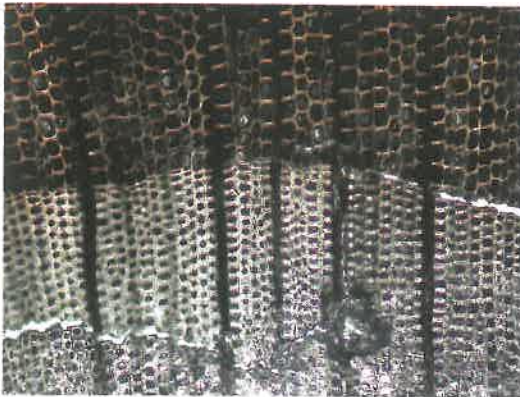
3. 분석결과 및 고찰

조사된 시료의 수종은 소나무과 소나무속 중 2엽송(경송류)로 식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송류에는 소나무(*P. densiflora*)와 해송(*P. thunbergii* 곰솔)이 있는데 이 두 수종의 목재는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없어 구분이 어렵다. 내륙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송일 확률이 적어 소나무로 식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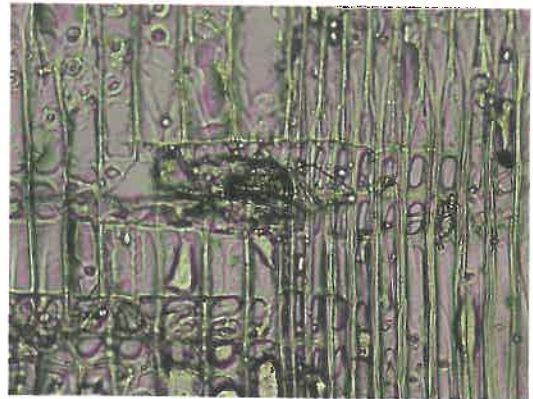
관찰된 현미경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 세포가 가도관으로 형성된 침엽수재로 박벽의 에피데리얼세포로 둘러싸여진 수직,수지구를 가지고 있었다(사진 7).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도관과 방사유세포간의 분야벽공은 창상형으로 관찰되었고, 축방향가도관 내에는 유연벽공이 단열로 존재하였다(사진 8). 또한 방사가도관에는 거치상비후가 발달되어 있었다(사진 9). 방사조직은 단열이며 수평수지구를 포함한 방추형방사조직도 함께 존재하였다(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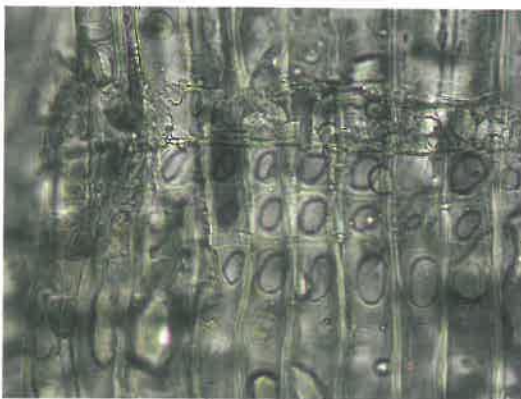
소나무속은 중생대에 출현하였으며 발견된 곳은 대동, 낙동, 영동 등이다. 중생대 백악기충인 남한의 진안과 북한의 사리원에서 출현한 이래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신생대 제 3기 마이오세 장기, 감포, 연일, 북평, 통천, 회령, 제 4기 플라이스터세 화성, 해상, 새별, 용곡, 금야, 화대, 두루봉, 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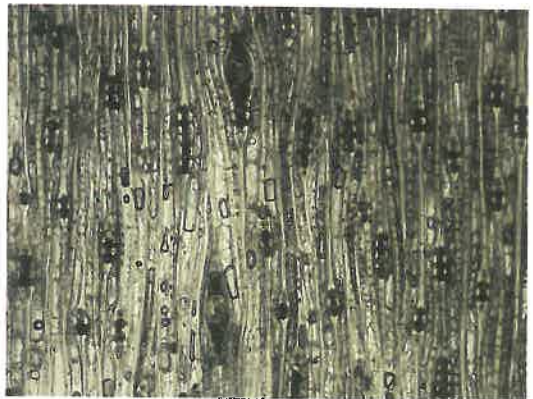
[사진 7] 소나무 횡단면(100×)



[사진 8] 소나무 방사단면1(400×)



[사진 9] 소나무 방사단면2(400×)



[사진 10] 소나무 접선단면(400×)

용굴, 영양, 가조, 석장리, 영랑호 그리고 홀로세 영랑호, 포항, 익산, 일산, 방어진, 시흥, 대암산, 예안, 무안 등지에서 발견되었다(공우석, 1997).

소나무는 현재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각처 산야의 양지에서 흔히 자라며 북부 고산지대에 있어서는 표고 800m이하의 지역에 분포한다. 심재는 적갈색이고, 비중이 0.75로서 재질이 좋기 때문에 현대에는 건축, 토목, 기구, 포장, 선박, 가구, 조각, 악기, 합판 등으로 널리 쓰인다(이창복, 1986). 탄화 소나무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청원 궁평리 청동기 유적(박원규, 1994), 화성 매향리 가마터 유적(박원규, 1995), 영종도 송산 선사유적(박원규, 1997) 등이며 목재 소나무가 출토된 유적은 화성 둔대리와 팔곡리, 구포리, 송나리의 조선시대 관재(박원규, 1995), 목포 달리도 고려배(김익주, 1999) 등이다. 이를 통해 소나무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유용한 목재로 쓰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관재로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상진 · 이원용 · 이화영, 1987. 목재 조직과 식별. 향문사.
- 이창복, 1999. 수목학. 향문사.
- 박상진, 1987. 주요 유용수종의 조직특성. 목재공학회 15(3):68-88.
- 이원용, 1997. 한국산 목재의 조직구조. 향문사.
- 박상진, 1990. 국산 활엽수재의 목재조직. 한국학술진흥재단 보고서.
- 이필우, 1994.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공우석, 1997.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식생 분포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 김익주, 1999. 달리도 선재의 수종.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술총서 3:146-153.
- 박원규 · 박희원, 1997. 영종도 송산 선사유적 출토 나무숯 분석. 시립대학교 박물관.
- 박원규, 1994. 청원 궁평리 청동기유적-숯 분석. 경부고속철도구간내 문화유적발굴보고서.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 박원규 · 권응원 · 박상진, 1995. 화성 둔대리와 팔곡리 출토 목재 및 숯 분석.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발굴조사 보고서(1):370-403.
- 박원규 · 권응원, 1995. 화성 매곡리 가마터 출토 관재의 수종식별과 나이테 분석.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발굴조사 보고서(3):116-118.

調査報告 第102冊

聞慶 石達洞 東學農民革命 有功者
蔡洪禹님 靈顯 奉安式 墳墓調査 報告書

인쇄일 : 2004년 5월 25일

발행일 : 2004년 5월 29일

발행처 : 忠北大學校 博物館

인쇄처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Tel. (02) 865-5072

Fax. (02) 853-3679

비매품

